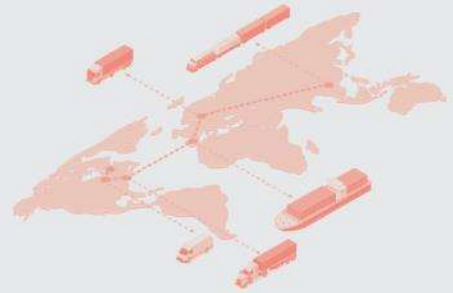




주요국 對베트남 진출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對베트남 진출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목 차

I 베트남 경제 및 외교정책 개관	5
1. 도이머이 개혁과 베트남 경제개혁	5
2.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FTA 체결 현황	6
3. 외국인투자(FDI) 유치 및 정책 변화	7
4. 베트남의 외교정책과 '대나무 외교' 전략	9
II 베트남의 교역·투자 현황	11
1. 베트남의 경제동향 및 주요경제지표	11
2. 베트남의 대외교역 동향	12
3. 베트남의 투자유치 동향	16
III 주요국별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20
1.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20
2. 중국의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25
3. 싱가포르의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36
4.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42
5. 한국의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47
IV 요약 및 시사점	54

요 약

□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글로벌경제 통합

- 도이머이(개혁·개방),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합 전략으로 성장 달성
 - 17개에 달하는 양자·다자 FTA 체결로 글로벌경제 편입
 - 투자유치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 ‘대나무 외교’ 기반의 전략적 균형외교와 외교 다변화 추진

□ 베트남의 교역 및 투자 현황

- 교역: 2024년 총 교역액 7,869억 달러
 - 최근 5년간 주요 교역국: 중국 > 미국 > 한국 순
 - 미국은 수출 1위, 중국은 수입 1위 대상국
-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계 5,028억 달러(~2024년)
 - 누적 투자국 순위: 한국 > 싱가포르 > 일본 > 대만 순
 - 2024년 신규 투자: 싱가포르 > 한국 > 중국 > 홍콩 > 일본 순

□ 주요국별 對베트남 진출현황과 특징

- (미국) 제조업 외 전문기술·ICT·에너지 중심으로 투자해왔으며 최근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 의존도 축소 흐름 속 반도체·AI 등 첨단 분야 진출 확대
- (중국) 미중 무역분쟁과 제조환경 변화에 따라 對베트남 투자 급증. 최근 제조업 중심에서 전기·전자 등 첨단 분야로 확대 중이나, 대외 리스크 병존
- (싱가포르) 제조업과 부동산 중심으로 베트남에 활발히 진출했으며 상당수 외국 기업이 경유한 형태. 대형 공단 개발 연계 고액 투자 프로젝트 多
- (일본) 최근 對베트남 투자 비중 감소 추세이나, 반도체·첨단기술·인프라·유통 분야 중심으로 전략적 전환 중
- (한국) 베트남 최대 제조업 투자국. 최근에는 기존 공장 증설 등으로 전환 중이며 전기·전자 중심의 제조업 진출이 북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 시사점

- 자유무역 확대 속 유망 진출지로 부상한 베트남이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미 실행정부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된 상황
- 한국은 베트남과의 협력 기반을 유지·심화하되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요국 접근법을 벤치마킹해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I 베트남의 경제 및 외교정책 개관

1. 도이머이 정책과 베트남의 경제개혁

□ 도이머이 정책의 배경

- 전쟁 및 중앙통제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경제 위기
 - 2차례의 베트남 전쟁, 내전, 캄보디아 침공 이후 중국과의 무력충돌 등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경제 피해
 - 캄보디아 침공 당시 서방의 원조중단과 미국의 무역봉쇄 등으로 난관에 봉착
 - 중앙통제식 집단농장 및 계획경제정책의 실패로 고인플레이션과 경제난 경험하며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의 부작용 체감
- 공산권 몰락과 주변국 성공사례로 인한 지도부 대외 인식 변화
 - 1990년대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과 이에 따른 외부 지원 감소로, 베 공산당 지도부의 수교 확대 필요성 인식 등 대외 인식 변화
 - 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성공적인 개방정책 및 외국자본 유치 사례를 참고해 베트남식 개혁개방정책을 모색하기 시작

□ 도이머이 추진 과정 및 성과

-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 “새롭게 바꾼다”라는 뜻의 Doi Moi 채택
- 1987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및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단계별 개혁 추진
- 주요성과 : 식량 증산, 수출 활성화, FDI 급증, WTO 가입 등 글로벌경제 통합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정책	주요 성과 및 한계
1단계: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기 (1986~1991) * 4차(1986~1990) 5개년 계획	식량, 소비재, 수출 육성 대외개방 정책 농업 개혁, 가족단위 농업 장려	식량증산, 쌀 수출 재개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 실업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동구권과 소련의 원조 중단
2단계: 시장 경제체제 준비기 (1992~2005) * 5차(1991~1995), 6차(1996~2000), 7차(2001~2005) 5개년 계획	헌법개정(1992, 2001) 국영기업 민영화 강력한 통화관리 은행 간 외환거래 허용(1994) 공업화, 기간산업 육성 민법 제정, 외자, 토지, 노동법 정비 금융 및 재정개혁 호치민 증권거래소 개장(2000.7) 국영기업법 제정 하노이 증권거래소 개장(2005.3)	외국인 투자 증가 한국(1992), 미국(1995)과 국 교 정상화 안정적인 성장국면 진입 ASEAN 가입(1995) APEC 가입(1998) 미국과 무역 정상화(2001) 2005년 8.4% 성장 ACMECS 가입(2005.11)
3단계: 시장 경제체제 확립기 (2006~) * 8차(2006~2010) 5개년 계 획	신투자법, 기업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 국영기업 개혁 본격화 10차 전당대회 국가자본투자경영총공사(SCIC) 설립 WTO 양허안 이행(2007.1~) 정부조직 개편(2007.7)	AFTA 본격 참가 APEC 정상회담 개최 미국이 PNTR 지위 부여 WTO 가입(2007) 제2차 외국인투자 붐 최초 민간은행 상장(2006.7) 2006년 8.2% 성장

자료: 양운철,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의 북한적용 가능성: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국제통상연구

2.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FTA 체결 현황

□ 적극적 개방과 다자 통상 네트워크 구축

- 미국, 한국 등과의 국교정상화 및 WTO 가입을 통한 글로벌 경제편입
-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 가입(ASEAN, APEC, CPTPP, RCEP 등)
-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25.5월 기준)
 - 한-베 FTA, EU-베 FTA, CPTPP, RCEP 등 총 17개의 양자·다자 협정 체결
 - 이를 통해 6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과 FTA 혜택을 확보하여 해외자본 유치 및 글로벌 공급망 기지화 기반을 마련함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연번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 발효일자
1	ASEAN / AEC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995-12-15 / 1996-01-01
2	ASEAN-China(ACFTA)	ASEAN, 중국	2002-11-04 / 2006-01-01
3	ASEAN-Korea(AKFTA)	ASEAN, 한국	2005-12-13 / 2007-07-29
4	ASEAN-Japan(AJCEP)	ASEAN, 일본	2008-04-01 / 2008-12-01
5	Vietnam-Japan(VJEPA)	일본	2008-12-25 / 2018-10-01
6	ASEAN-India(AIFTA)	ASEAN, 인도	2003-10-08 / 2010-01-01
7	ASEAN-Australia-New Zealand(AANZFTA)	ASEAN, 호주, 뉴질랜드	2009-02-27 / 2010-01-01
8	Vietnam-Chile(VCFTA)	칠레	2011-11-11 / 2014-01-01
9	Vietnam-Korea(VKFTA)	한국	2015-05-05 / 2015-12-20
10	EAEU-Vietnam FTA	유라시아 경제연합(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2015-05-29 / 2016-10-05
11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2016-02-04 / 2018-12-30
12	EU-Vietnam(EVFTA)	EU	2015-12-01 / 2020-08-01
13	ASEAN-Hong Kong FTA	ASEAN, 홍콩	2017-11-12 / 2019-06-11
14	RCEP(ASEAN+6)	ASEAN,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20-11-15 / 2022-01-01
15	Vietnam - The UK (UKVFTA)	베트남, 영국	2020-12-11 / 2021-05-01
16	Vietnam - Israel (VIFTA)	베트남, 이스라엘	2023-07-25 / 2024-10-15
17	Vietnam - UAE CEPA	베트남, UAE	2024-10-28 / -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3. 외국인투자(FDI) 유치 및 정책 변화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 1987년 최초 외국인투자법 제정 후 단계적 개정(인센티브 확대, 절차 간소화)
- WTO 가입을 계기로 투자법, 기업법 등 시장 개방 폭 확대
 - 외국인투자법은 1987년 제정 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수출가공단지 도입, 법인세·관세·수입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투자 절차 간소화 등 지속 보완

<베트남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제 연혁>

1987년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법(4-HDNN8), 1987년 12월 29일 제정, 1988년 1월 9일 발효
 2005년 투자법(59/2005/QH11), 2005년 11월 29일 제정, 2006년 7월 1일 발효
 2005년 상법(36/2005/QH11), 2005년 6월 14일 제정, 2006년 1월 1일 발효(이후 개정 이력 없으나 하위 법령 개정 중)
 2013년 도시개발 투자 관리에 관한 시행령(11/2013/ND-CP), 2013년 1월 14일 제정, 3월 1일 발효
 2014년 토지법 (45/2013/QH13), 2013년 11월 29일 제정, 2014년 7월 1일 발효(→ 2018년 개정)
 2014년 부동산사업법(66/2014/QH13), 2014년 11월 25일 제정, 2015년 7월 1일 발효
 2014년 투자법(67/2014/QH13), 2014년 11월 26일 제정, 2015년 7월 1일 발효
 2014년 기업법(68/2014/QH13), 2014년 11월 26일 제정, 2015년 7월 1일 발효
 2015년 투자법 시행령(118/2015/ND-CP), 2015년 11월 12일 제정, 12월 27일 발효
 2016년 투자법(03/2016/QH14), 조건부 사업투자 분야 목록에 관한 부록 수정 및 보충
 2016년 11월 22일 제정, 2017년 1월 1일 발효
 2020년 투자법(61/2020/QH14), 2020년 6월 1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발효
 2020년 기업법(59/2020/QH14), 2020년 6월 17일 제정, 2021년 1월 1일 발효
 2020년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PPP, 64/2020/QH14), 2020년 6월 18일 제정, 2021년 1월 1일 발효
 (→ 2024년 일부개정)
 2021년 투자법 시행령(31/2021/ND-CP), 2021년 3월 26일 제정 및 발효
 2022년 부동산사업법 시행령(02/2022/ND-CP), 2022년 1월 6일 제정, 3월 1일 발효

자료: 2024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KOTRA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투자법 개정 주요 내용>

연도/법령	주요 내용
1987년 외국인투자법 (1988년 1월 발효)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채택 이후 이듬해 외국인투자법 제정해 외국인 투자(FDI) 공식 허용 FDI 허용 형태를 규정(외국인 투자자는 사업협력계약(BCC), 합작투자(JV), 전액 외국인 소유 사업(FIE)의 3가지 형태로 투자 가능) 관세 면제, 이익 재투자 시 세금 환급 등 투자 인센티브 규정 투자자의 베트남 내 자본·이익 이전 보장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1992년 외국인투자법 (1993년 7월 발효)	수출가공지역(EPZ), 수출가공기업(EPE) 도입, BOT(건설-운영-양도) 계약 방식을 투자 형태에 추가 수출 지향 FDI 우선 허가
1996년 외국인투자법 (1996년 11월 발효)	투자 확대, 제조업 분야 투자 장려, 수출·기술·생산성 향상 위해 외국인투자법 개정 * 수출 비중 80% 초과하는 FDI 프로젝트 인허가에서 우선권 부여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수출가공단지, 산업단지 내 토지 제3자 임대 허용, 수입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확대
2000년 외국인투자법 (2000년 7월 발효)	1997~2000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FDI 감소에 대응,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코자 개정 * 수입세 면제, 이익 송금 관련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및 행

	정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외 은행 차입시 토지부속자산 및 토지 사용권 담보 제공 권리 부여
2005년 투자법 (2006년 7월 발효)	내·외국인 동등 대우를 규정하는 통합투자법 제정 유통·무역업 등 과거 금지 업종에 대해 심사 통한 투자 허용을 통한 개방범위 확대
2014년 투자법 (2015년 7월 발효)	외국 투자 법인 정의 명확화 및 투자 금지 분야 축소
2020년 투자법 (2021년 1월 발효)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세제·지원 혜택 명시 투자자 정의 재정(50% 초과 지분 보유시 외국인투자자로 간주) 외국투자자의 시장접근 금지 및 조건부 접근 분야 세부목록 규정(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채택) 자본 조달 수단 개선(은행 대출 담보용 토지 사용권 제공 허용 등)

자료: 신충일, 동아법학 제97호,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환경친화적·첨단기술 위주로의 투자정책 전환

- 2019년 공산당 정치국 결의 제50호 및 2020년 정부 투자유치 로드맵 (58/ND-CP)을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 투자 유도
- 단순 노동집약형에서 지속가능·첨단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 전략 변화

4. 베트남의 외교정책과 ‘대나무 외교’ 전략

□ 다변화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구축

- 미-중 경쟁 속 주요 강대국과 전략적 균형 유지는 베트남 외교의 기본 축임
- 과거에는 전통적 우방국 중심으로 제한되었던 CSP 관계를 2022년 이후 적극 확대하여, 2025년 6월 기준 총 13개국과 최고 수준의 외교관계인 CSP로 격상
 - * 2022년 이전 베트남의 CSP는 중국(2008), 러시아(2012), 인도(2016) 3개국에 불과했으나, 이후 한국(2022), 미국·일본(2023), 호주·프랑스·말레이시아(2024), 뉴질랜드·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2025)로 3년 사이 총 13개국으로 급증
-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는 전략적 균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공백 없는 다자외교 지향하고 있음

□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및 외교 리스크 관리

○ 유연한 대응을 통한 실리적 균형외교 추구(Bamboo Diplomacy)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 베트남은 독립·주권·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개방과 국제협력을 중시하며 미·중 등 강대국 간 균형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대나무 외교’를 추진 중임. 2016년 응우옌 푸 쯑 전 서기장이 처음 언급한 ‘대나무 외교’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의 잇따른 방문과 외교관계 격상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으며 쯑 전 서기장의 주요 외교적 유산으로 평가됨

<주요국 정상들의 베트남 방문일지>

- 2015년 7월: 응우옌 푸 쯑 전 서기장, 미국 백악관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
-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 2023년 9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으로 양국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외교관계 최고 수준)
- 2023년 11월: 베트남-일본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 2023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트남 국빈 방문해 ‘미래를 공유하는 베트남-중국 공동체’ 건설에 합의
- 2024년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노이 방문 및 응우옌 서기장과 정상회담
- 2025년 4월: 베트남, 對미 관세 협상 특사 파견과 동시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하노이 방문 동시 진행

○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스크 대응 필요

- 미국의 탈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베트남은 공급망 혼선, 원자재 비용 상승 등 불확실성 직면
- 높은 교역의존도(160% 이상)로 인해, 보호무역 확대 시 기존의 ‘CHINA+1’ 전략 기반 경쟁력 유지 불투명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환율·운임 등 변동성 증가

- 러·우·중동 위기, 미·중 갈등 등으로 환율(VND/달러: 23,787→24,165)과 해상 운임 급등
- 교역 노선 변경에 따른 추가 물류비 부담 확대 및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2 베트남의 교역·투자 현황

1. 베트남 경제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베트남 경제동향

- 2024년 기준, 베트남은 9월의 태풍 야기(Yagi)에도 불구하고 생산,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돼 7.09%의 성장률을 달성
 -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교역·산업 생산 증가, 관광 개선, 외국인 투자 유입 지속 등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연도별 성장률: ('21) 5.76% → ('22) 8.02% → ('23) 5.05% → ('24) 7.09%
- **(무역)** 교역이 부진했던 2023년과 달리, 2024년에는 수출입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5% 증가한 7,869억 달러 기록, 무역수지는 9년 연속 흑자 달성
 - 수출이 14.5%, 수입이 16.7% 증가해, 교역액은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보다 높았고 10년 전 교역 규모 대비 2배 이상 증가
 - 연도별 교역규모(단위: 달러): ('21) 6,690억 → ('22) 7,313억 → ('23) 6,810억 → ('24) 7,869억
- **(투자)** 인바운드 FDI는 38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감소
 - 연도별 FDI(단위: 달러): ('21) 311.5억 → ('22) 277.2억 → ('23) 393.9억 → ('24) 382.3억
- **(생산)** 산업생산지수(IIP) 기준 2024년에 전년 대비 8.4% 증가
 - IIP의 전년 대비 증감률: ('21) 4.8% → ('22) 7.8% → ('23) 1.5% → ('24) 8.4%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3.63%로 안정세 유지('24년 정부 목표 4.5% 이내)
 - 연도별 CPI: ('21) 1.84% → ('22) 3.15% → ('23) 3.25% → ('24) 8.63%

□ 베트남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명목 GDP	억 USD	3,463.1	3,700.8	4,110.7	4,330.1	4,594.7
1인당 명목 GDP	USD	3,548.9	3,756.9	4,132.9	4,316.7	4,535.8
실질경제성장률	%	2.91	2.58	8.02	5.05	7.09
물가상승률(CPI)	%	3.23	1.84	3.15	3.25	3.63
실업률	%	2.48	3.20	2.34	2.28	2.24
수출	억 USD	2,826	3,362	3,717	3,547	4,059
수입	억 USD	2,627	3,328	3,596	3,264	3,810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경제성장률, CPI, 실업률), 관세총국(수출·입), IMF(GDP)

2. 베트남의 대외교역 동향

□ 2024년 기준, 베트남의 교역액·수출액·수입액 전년 대비 모두 증가

- 베트남 교역규모는 글로벌경기 둔화로 대외수요가 감소한 2023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코로나 시기에도 각각 5.3%, 22.7% 성장하는 등 견조한 회복력을 보임
- 2024년 베트남 교역규모는 글로벌 수요 회복 및 전자제품, 섬유류 등 주요 수출품목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7,869억 달러를 기록

<베트남의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43,697 (13.3)	264,267 (8.4)	282,629 (7.0)	336,167 (18.9)	371,715 (10.6)	354,671 (△4.6)	405,935 (14.5)
수입	236,869 (11.2)	253,393 (7.0)	262,691 (3.7)	332,843 (26.7)	359,575 (8.0)	326,374 (△9.2)	380,991 (16.7)
무역수지	6,828	10,874	19,938	3,324	12,140	28,297	24,945
교역규모	480,566 (12.3)	517,660 (7.7)	545,320 (5.3)	669,009 (22.7)	731,290 (9.3)	681,045 (△6.9)	786,926 (15.6)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베트남 주요 교역국 현황

- 중국, 미국, 한국 순으로 3국이 베트남 전체 교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미국은 베트남 수출액 전체의 약 30%, 중국은 베트남 수입액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며 각각 수출, 수입 대상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20~'24년 베트남의 10대 교역국 순위 및 국가별 교역 규모>

(단위 : US\$ 십억,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1	중국	133.1 (24.4)	중국	166.5 (24.9)	중국	176.4 (24.0)	중국	171.9 (25.2)	중국	205.57 (26.1%)
2	미국	90.8 (16.7)	미국	111.5 (16.7)	미국	123.9 (17.0)	미국	110.8 (16.3)	미국	134.63 (17.1%)
3	한국	66.0 (12.1)	한국	78.3 (11.7)	한국	86.6 (11.8)	한국	76.0 (11.2)	한국	81.66 (10.4%)
4	일본	39.6 (7.3)	일본	42.9 (6.4)	일본	47.6 (6.5)	일본	45.0 (6.6)	일본	46.23 (5.9%)
5	대만	21.0 (3.9)	대만	25.4 (3.8)	대만	27.8 (3.8)	대만	23.2 (3.4)	대만	28.37 (3.6%)
6	태국	15.9 (2.9)	태국	18.7 (2.8)	태국	21.6 (3.0)	태국	19.0 (2.8)	태국	20.26 (2.6%)
7	홍콩	11.5 (2.1)	홍콩	13.6 (2.0)	호주	15.6 (2.2)	인도	14.4 (2.1)	인도네시아	16.71 (2.1%)
8	말레이시아	10.0 (1.8)	인도	13.2 (2.0)	인도	15.1 (2.1)	인도네시아	13.8 (2.0)	인도	14.89 (1.9%)
9	독일	10.0 (1.8)	말레이시아	12.6 (1.9)	말레이시아	14.7 (2.0)	호주	13.8 (2.0)	말레이시아	14.14 (1.8%)
10	인도	9.7 (1.8)	호주	12.4 (1.9)	인도네시아	14.2 (1.9)	말레이시아	12.7 (1.9)	호주	14.04 (1.8%)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24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수입국 현황>

(단위 : US\$ 십억, %)

순위	국가명	수출액 (비중)
1	미국	119.5(29.4%)
2	중국	61.37(15.1%)
3	한국	25.68(6.3%)
4	일본	24.61(6.1%)
5	네덜란드	12.99(3.2%)
6	홍콩	12.42(3.1%)
7	인도	9.06(2.2%)
8	독일	7.95(2.0%)
9	태국	7.81(1.9%)
10	영국	7.54(1.9%)
기 타		116.98(28.8%)
합 계		405.94(100)

순위	국가명	수입액(비중)
1	중국	144.20(37.9%)
2	한국	55.99(14.7%)
3	대만	22.75(6.0%)
4	일본	21.62(5.7%)
5	미국	15.10(4.0%)
6	태국	12.45(3.3%)
7	인도네시아	10.52(2.8%)
8	호주	9.07(2.4%)
9	말레이시아	7.60(2.0%)
10	쿠웨이트	7.25(1.9%)
기 타		74.44(19.5%)
합 계		380.99(100)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베트남 교역국별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

(단위: US\$ 백만, %)

상대국	주요 수출품목	수출액	비중	상대국	주요 수입품목	수입액	비중
미국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23,201	19.4	중국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34,646	24.0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22,053	18.5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28,964	20.1
	섬유·의류제품	16,153	13.5		식물	9,984	6.9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9,824	8.2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9,047	6.3
	목재 및 목제품	9,063	7.6		철강	7,490	5.2
	전체	119,523	-		전체	144,203	-
중국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15,439	25.2	한국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31,894	57.0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12,644	20.6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5,268	9.4
	과일 및 채소	4,630	7.5		석유제품	2,328	4.2
	정지 영상·비디오 카메라 및 부품	4,572	7.4		플라스틱	2,325	4.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3,360	5.5		기타 기초 금속	1,529	2.7
	전체	61,371	-		전체	55,988	-
한국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5,726	22.3	대만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13,865	61.0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3,556	13.9		식물	1,496	6.6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3,261	12.7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1,381	6.1
	섬유·의류제품	3,149	12.3		플라스틱	1,228	5.4
	수송수단 및 부속품	1,636	6.4		철강	634	2.8
	전체	25,677	-		전체	22,746	-
일본	섬유·의류제품	4,329	17.6	일본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6,728	31.1
	수송수단 및 부속품	3,027	12.3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016	18.6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2,766	11.2		철강	1,506	7.0
	목재 및 목제품	1,746	7.1		철강 폐기물 및 고철	991	4.6
	수산물	1,532	6.2		플라스틱 제품	812	3.8
	전체	24,608	-		전체	21,622	-
네덜란드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3,474	26.7	미국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4,336	28.7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2,454	18.9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1,101	7.3
	신발류	1,670	12.9		동물 사료 및 원료	1,016	6.7
	섬유·의류제품	1,225	9.4		플라스틱	784	5.2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1,058	8.1		면화	681	4.5
	전체	12,991	-		전체	15,102	-

주: 2024년 수출·수입액 기준 순위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3년		2024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57,336	16.2	72,595	26.6	17.9
2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52,379	14.8	53,891	2.9	13.3
3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3,128	12.2	52,172	21.0	12.9
4	섬유·의류제품	33,329	9.4	37,040	11.1	9.1
5	신발류	20,238	5.7	22,875	13.0	5.6
6	목재 및 목제품	13,468	3.8	16,280	20.9	4.0
7	수송수단 및 부속품	14,157	4.0	15,243	7.7	3.8
8	수산물	8,971	2.5	10,040	11.9	2.5
9	철강	8,350	2.4	9,078	8.7	2.2
10	카메라 및 부분품	7,619	2.2	8,022	5.3	2.0
	기타	95,696	27.0	108,700	13.6	26.7
	총 수출액	354,671	100	405,935	14.5	100.0

주: 2024년 수출액 기준 순위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3년		2024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87,966	27	107,119	21.8	28.1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1,580	12.7	48,897	17.6	12.8
3	직물	13,017	4.0	14,913	14.6	3.9
4	철강	10,425	3.2	12,584	20.7	3.3
5	플라스틱 원료	9,755	3.0	11,786	20.8	3.1
6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8,749	2.7	10,404	18.9	2.7
7	기타 비금속류	7,627	2.3	9,564	25.4	2.5
8	플라스틱 제품	7,509	2.3	8,856	17.9	2.3
9	화학 원료	7,727	2.4	8,285	7.2	2.2
10	원유	7,106	2.2	8,116	14.2	2.1
	기타	124,913	38.3	140,466	13.9	36.9
	총 수입액	326,374	100	380,991	16.7	100.0

주: 2024년 수입액 기준 순위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2. 베트남의 투자 유치 동향

□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2024년 누계 기준,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42,002개 프로젝트, 투자액 5,028억 달러 기록
 - 국가별 투자 순위는 누적 기준 한국이 920억 달러(10,102개, 총액의 18.3%), 싱가포르 831억 달러(3,914개, 16.5%), 일본 777억 달러(5,498개, 15.4%), 대만 409억 달러(3,264개, 8.1%) 순
- 2024년 한 해 기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총액 약 38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감소
 - 동 기간 신규 투자는 3,375건, 197.3억 달러, 증액투자는 1,539건 139.6억 달러, 지분 및 주식매입 투자는 3,502건 45.4억 달러
 - 투자 분야는 제조·가공업에 255.8억 달러가 투자돼 전체 FDI의 66.9% 차지, 이어 부동산경영업(16.5%), 전력·가스·용수생산 및 판매업(3.7%), 도소매 유통 및 수리업(3.7%), 전문과학기술업(3.3%) 순

< 2024년 주요 산업 분야별 외국인 투자 >

(단위: US\$ 백만, %)

	산업분야	신규투자		증액투자		지분투자 및 주식매입		총투자 금액 (2024)	전년 대비 증감률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1	제조가공업	1,169	13,436.8	982	11,244.9	555	896.6	25,578.2	1%
2	부동산경영업	81	3,716.6	54	1,374.9	83	1,218.0	6,309.5	19%
3	전력, 용수 생산 및 판매업	4	1,023.7	5	257.9	13	139.8	1,421.5	△40%
4	도소매 및 수리업	1,172	833.1	190	219.7	1,432	354.7	1,407.5	5%
5	전문과학기술	364	121.8	94	378.9	565	768.1	1,268.8	△12%
6	건설업	52	43.4	39	56.8	75	542.6	642.8	82%
7	물류, 창고업	115	341.2	33	92.6	142	54.0	487.8	△1%
8	정보통신업	235	38.0	69	115.4	242	128.3	281.7	△33%
9	기타 서비스업	9	4.8	3	163.0	14	1.7	169.5	272%
10	행정 및 지원사업	69	43.1	27	17.5	79	99.8	160.4	165%
11	요식서비스업	38	21.2	20	28.1	198	74.4	123.7	39%
12	금융, 보험업	6	4.1	1	0.1	18	119.5	123.6	△92%
13	의료 및	2	2.2	2	0.8	14	92.4	95.4	△74%

	사회복지업								
14	농림수산업	11	64.5	8	9.1	16	4.0	77.6	13%
15	교육업	38	27.5	7	6.3	38	5.8	39.6	△17%
16	용수 공급 및 폐수처리업	1	0.0	4	(-9.1)	6	29.7	20.6	△82%
17	예술, 엔터테인먼트	8	8.6	-	-	7	5.7	14.3	5%
18	광산개발	1	0.6	1	0.2	5	3.0	3.8	272%
	총계	3,375	19,731.1	1,539	13,957.0	3,502	4,538.1	38,226.2	△3.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4.12.31. 기준

□ 주요국별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2024년 1~12월 기준, 對베트남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한국, 중국 순

- 2024년 한 해,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 중 싱가포르 투자 강세 지속 중. 한국은 투자국 2위
- 한국(37.5%), 싱가포르(31.4%), 중국(3.1%)은 전년 대비 對베트남 투자 금액이 증가했으나 일본(-48.1%), 대만(-29.5%), 홍콩(-9.5%)은 감소
- 2024년 한 해, 對베트남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102.1억 달러, 전체 FDI의 26.7%)이며, 다음으로 한국(70.6억 달러, 18.5%), 중국(47.3억 달러, 12.4%), 홍콩(43.5억 달러, 11.4%), 일본(35.0억 달러, 9.2%) 순

< 2024년 對베트남 상위 20개국 투자 현황 >

(단위: US\$ 백만, %)

순번	투자국	신규투자		증액투자		지분투자 및 주식매입		총투자 금액(2024)	전년 대비 증감률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1	싱가포르	462	6,260.1	182	2,691.2	343	1,256.0	10,207.4	31.4%
2	한국	410	2,886.3	351	3,902.6	883	268.5	7,057.3	37.5%
3	중국	955	2,843.0	230	1,130.5	512	758.6	4,732.1	3.1%
4	홍콩	379	2,170.5	175	2,064.6	93	112.4	4,347.5	△9.5%
5	일본	270	1,776.3	174	800.7	227	925.1	3,502.2	△48.1%
6	대만	187	1,121.8	116	713.9	287	248.9	2,084.6	△29.5%
7	케이만군도	4	34.5	4	1,002.3	19	194.7	1,231.5	445.7%
8	사모아	45	460.8	34	339.0	22	55.8	855.6	△22.3%
9	터키	7	731.3	2	31.6	8	0.6	763.5	315.7%
10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17	219.3	29	217.5	16	149.5	586.3	117.3%

11	네덜란드	24	61.3	20	461.7	22	23.0	546.1	△43.7%
12	미국	111	183.2	32	(-44.4)	148	148.4	287.3	△55.6%
13	세이셸	27	174.9	26	89.5	8	9.6	274.0	△0.4%
14	영국	44	173.3	12	38.9	43	29.1	241.3	172.3%
15	태국	28	111.5	17	83.6	37	30.1	225.2	△74.8%
16	말레이시아	44	90.3	16	75.5	71	19.4	185.2	△58.2%
17	룩셈부르크	4	129.2	4	3.1	3	7.7	140.1	1115.9%
18	독일	24	56.5	16	31.8	30	30.3	118.5	△72.4%
19	스위스	13	3.4	8	99.0	10	0.7	103.2	131.7%
20	인도	48	2.8	5	74.6	75	9.4	86.7	△35.8%
	기타	-	-	-	-	-	-	-	-
	총계	3,375	19,731.1	1,539	13,957.0	3,502	4,538.1	38,226.2	△3.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4.12.31. 기준

○ 2024년 한 해, 對베트남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는 안정적

- 2024년 제조업 분야 전체 FDI 유치액(신규+증액+M&A, 주식매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
- 미-중 무역분쟁 및 공급망 변화로 인한 탈중국 제조공장 이전 사례 증가
- 2024년 말 기준, 제조업 신규 프로젝트 투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

□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전망

○ 베트남,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생산기지 다변화 흐름 속에서 핵심 투자처로 부상

- 최근 5년간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는 연평균 5.7% 성장
- 제조업 비중은 '21년 58.1%에서 '24년 66.9%로 확대, 산업 구조 고도화 추세 반영
- 특히 기존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산업에서 벗어나 반도체, 전자부품, 전기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전환 및 다양화되고 있음
-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으로 중국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현상 지속
- 지정학적 입지와 더불어 다수의 FTA 체결을 통한 개방된 무역 환경도 투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배경

- **(FDI 지속 증가 추세)** 베트남 정부는 2025년 상반기 등록 외국인 투자자본은 전년 대비 약 40% 증가 예상, 특히 제조업(68%)과 부동산 개발(21%)에 집중

-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베트남 정부, 반도체·AI·그린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의 투자유치 계획 구체화
- **(디지털 및 친환경 산업 강화)** 베트남 디지털 경제는 2025년까지 약 500억 달러 규모 성장 예상. 정부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 또한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는 최근 국가전력개발계획 (PDP8)을 계기로 민간 발전 시장 참여 확대 추진 등 투자 잠재력이 우수
- **(정책 및 인프라 지원)**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400억 달러 이상의 FDI 유치 목표 설정하며 대규모·하이테크 산업 대상 투자지원펀드 조성,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중
- **(우수한 제조업 투자 환경)** 젊은 인력, 낮은 제조비용,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ASEAN 내에서 투자 매력도 지속 강화 중

<주요국 향후 對베트남 투자 전망>

국가	내용
한국	기존 제조공장 증설 투자를 통해 베트남 내 제조 기반 강화. 제조업 투자 비중은 74.7% 수준이며, 향후 에너지, 부동산, 유통 등으로 투자 다변화 전망
싱가포르	금융 허브 기능을 활용해 중국, 미국 지주회사의 경유 투자 확대 지속될 것.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및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
중국	전기·전자,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진출 가속화. 탈중국 생산기지 이전 사례가 계속될 것
일본	전통 제조업 분야 투자는 감소할 가능성 있으나, 반도체 장비, 첨단 R&D 등 분야로 전환. 인프라 및 발전 분야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대만	기존 전자산업 중심으로 투자되었으며 추가 투자 여력은 낮음.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 협력사의 현지 공장 확장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임
홍콩	중국계 자본의 우회 투자 창구 역할 계속될 것. 제조업 및 에너지 분야 중심 지속 투자 전망
미국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중심 투자 확대될 것이며, 미국의 상호관세 완화의 반대급부로 통신, 관광 등 민감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

3 주요국별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1.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 외교적 기반 및 제도적 협력 현황

- 양국 관계는 베트남전 이후 약 20년간의 단절과 경제제재로 경색 상태였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 1994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1995년 국교 정상화, 클린턴 대통령의 방베를 계기로 외교관계 복원
- 오바마 행정부 시기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 계기로 양국 관계는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수준으로 진전됐으며, 이후 고위급 교류 지속됨
- 2000년 양자무역협정(BTA) 체결,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CPTPP 참여 등 무역 자유화 진전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
- 미국은 USAID를 통해 전쟁 피해 복구를 시작으로 보건·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협력 지원. 또한,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한 기업 애로 해소 및 정책 대화 등 민관 협력을 병행 중
- 경제 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환율조작국 지정 등 무역 관련 이슈 상존. 최근 미국의 USAID 축소, 관세 부과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미 대외 기조 변화 가능성 제기되고 있음

<베트남-미국 간 주요 외교일지>

날짜	주요 내용
1964~1973	베-미 베트남전 * 1964.8 톤킨만 사건
1973.1	파리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
1975.4	베트남 공산화 후 양국 관계 단절, 미국 對베트남 경제 제재 조치
1989	베트남 캄보디아 철수
1995.7	베트남-미국 공식 외교관계 수립
2000	양자무역협정 서명 (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2001년 12월 발효) 클린턴 대통령 베트남 방문(2000년 11월) 베트남 상품 관세 철폐 및 최혜국대우(MFN) 부여

2006.11	부시 대통령, 베트남 방문,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부여
2008.10	베-미 간 최초 전략대화 개최(하노이)
2010	베-미 수교 15주년 계기 협력 분야 다변화 * 제1차 베-미 군사정책대화 개최, 원자력안전협력협정 논의, 미 항공모함 방문, 다이옥신·고엽제 제거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 등
2013.7	포괄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로 격상
2015.7	응우옌 푸 쯁 서기장 방미(공산당 서기장으로서 사상 최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2017년 미국 탈퇴 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발효)
2016.5	오바마 대통령 베트남 방문 * 무기 금수 조치 전면 해제 발표
2017.11	트럼프 대통령 베트남 방문(다낭 APEC 정상회의 참석)
2019.2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개최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폼페오 국무장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베트남 방문
2021	바이든 행정부 오스틴 국방장관, 해리스 부통령 방문
2023	블링컨 국무장관 베트남 방문(4월) 바이든 대통령 베트남 방문(9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24.6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최종 합의문 서명
2025.4	트럼프 2기 행정부 베트남 상호관세 46% 부과 베트남, 對미 특사 파견, 손 오닐 국무부 고위관리 베트남 방문 통한 경제협력 강화 및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 논의

□ 주요 협력 분야 및 현황

① 첨단기술 협력

- 올해 3월, 팜민찐 총리는 미국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베트남에의 투자유치를 요청하며 특히 하이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를 강조
- 미국은 CHIPS법의 ITSI 펀드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등 지원을 약속했으며, 인텔과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이 인력 양성 및 기술 투자를 확대 중임
- 베트남에는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 주요 미국 기업이 투자했으며, 인텔은 남부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46,000m² 규모의 공장을 보유 중
- *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인 인텔, 마벨, 마이크로칩, 앰코테크놀로지, 시놉시스 등 베트남에서 R&D, 칩 설계 및 테스트, 패키징 등 공장 보유
- 엔비디아는 베트남의 FPT와 인공지능(AI) 공장 건설에 2억 달러 투자 골자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4년 12월 빈그룹 자회사 빈브레인을 인수하는 등 베트남 AI 산업 발전에 적극적 지원 약속

② 에너지 및 자원

- 미국은 베트남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LNG 수입, 재생에너지 기술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 확대되는 추세
- 특히, 3월 홍 지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이끄는 베트남 총리 특사단의 방미 계기로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다수 협력 문건이 체결됨

<베트남-미국 협력 체결 문건(2025년 3월)>

당사자	주요 내용
(베) PetroVietnam Gas Joint Stock Corporation (미) ConocoPhillips, Excelerate Energy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관련 양해각서 체결
(베) 페트로베트남 전력공사(PVPower) (미) GE 버노바	PVPower가 개발 중인 가스 화력발전소용 장비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베) 베트남 국영 석유 그룹(Petrolimex) (미) 곡물협회(USGC), 재생연료협회(RFA), 그로스 에너지(Growth Energy) 등	바이오연료 거래 및 수입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베) 빈선 정유 및 석유화학 주식회사(BSR) (미) 켈로그 브라운 & 루트 서비스(Kellogg Brown & Root Services, Inc., KBR)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베) 마산그룹(Masan Group) (미)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	심층 광물 가공 협력에 관한 의향서 체결

③ 통신 및 항공

- 베트남은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터넷 사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스타링크(Starlink)의 시범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임
- 스페이스X는 2025년 5월 베트남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위성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
- 비엠텐은 AV AirFinance와 3억 달러 규모 항공기 금융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잉(Boeing)과의 240억 달러 규모 항공기 구매 계약에 따라 2025년부터 첫 인도분 수령 예정. GE, Pratt & Whitney와 엔진 및 기술 협력도 확대 중

□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 미국의 對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2025년 3월 기준 약 119억 달러로, 규모는 한국의 약 1/8 수준이나 베트남의 11위 투자국으로, 전통적으로 제조업보다 전문 과학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에 집중돼 있음
- 최근 3년간 제조업 분야 투자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기술 협력, 소비시장 확대 등으로 미국 기업의 베트남 직접투자는 확대 추세임
- 특히 베트남의 산업 고도화 및 미국 기업의 중국 의존도 축소 전략과 맞물려, 반도체, 인공지능(AI), 식음료, 소비재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 중

<2022년 ~ 2025년 3월 산업 분야별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US\$ 백만, 건)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투자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제조·가공	42	617	37	60	56	70	747	39.8%
전문과학기술	94	33	16	120	97	271	423	22.5%
정보통신	61	15	14	131	58	77	223	11.9%
부동산경영	4	14	-	-	16	149	163	8.7%
도소매, 유통, 수리	94	38	8	17	141	44	98	5.2%
전력 생산·판매	1	90	-	-	-	-	90	4.8%
기타	-	-	-	-	-	-	-	-
총계	330	828	82	332	478	718	1,878	100%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2022년 ~ 2025년 3월 미국의 對베트남 신규 투자 주요 프로젝트>

(단위: US\$)

순번	투자프로젝트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투자지역	투자일
1	SILICON CARBIDE	반도체 관련	5.4천만	Dong Nai성(남부)	2024.04
2	Amphenol Jet	전자부품	3.2천만	Bac Giang성(북부)	2024.1
3	NEW STAR VIETNAM	오토바이제조	3.0천만	Hai Duong성(북부)	2024.11
4	MI-JACK INTERNATIONAL	건설 기자재	2.9천만	Ba Ria-Vung Tau성(남부)	2023.06
5	AMAZONE KUIPER HOLDING	기술서비스	2.1천만	Ho Chi Minh시(남부)	2024.04
6	SEVILLE SIGNATURE	기타 기자재	2.0천만	Ba Ria-Vung Tau성(남부)	2023.07
7	Australis	수산물가공	1.7천만	Kien Giang성(남부)	2024.09
8	CACTUS WELLHEAD INTERNATIONAL	열처리	1.5천만	Hai Duong성(북부)	2024.10
9	RECOVER HOLDCO	섬유	1.2천만	Dong Nai성(남부)	2024.08
10	SC2A	정보통신	0.7천만	Binh Duong성(남부)	2023.11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주요 미국 기업 진출 현황

◆ Winvest Investment (2007~) : 호텔 사업

- 총 투자액 : 41억불
- 진출 동향 : 복합 리조트 "사이공 아틀란티스 호텔" 개발 (호텔, 리조트, 고급 아파트 포함)

◆ Intel (2006~) : 반도체(칩) 조립, 검사 및 R&D

- 총 투자액 : 15억불, 종업원 5,000명
- 진출 동향 : 연간 수출 100~110억 USD, 누적 수출 850억 USD, 추가 투자 계획 중

◆ Citibank(1993~) : 금융, 은행

- 총 투자액 : 2.4억불, 종업원 600명
- 진출 동향 : 금융·은행 서비스 / 다국적 기업, 중소기업, 개인 대상 글로벌 금융 제공

◆ Ford (1995~) : 자동차 제조 및 판매

- 총 투자액 : 2억불, 고용자: 5,000명, 연간 생산능력 40,000대
- 진출 동향 : 2024년 판매량 42,175대(+10%) / 픽업, SUV, 상용차 시장 점유율 선도

◆ Coca Cola (1994~) : 식음료

- 총 투자액 : 10억불
- 진출 동향 : 음료 생산 / 2022년 통안에 제4공장 착공 (투자 1억 3,600만 USD), 베트남 내 4개 공장 운영, 약 2,000개 직접·간접 일자리 창출

◆ AES (2010~) : LNG 터미널, 에너지 인프라 투자

- 총 투자액 : 21억불
- 진출 동향 : 에너지 인프라 및 LNG 전환 / 손미 LNG 터미널 공동 개발 (14억 USD), 최근 2023년, 손미 II CCGT 복합가스터빈 발전소(22억W) 투자 승인

◆ Coherent (2024~) : 반도체 및 광학부품

- 총 투자액: 1.3억불
- 진출 동향 : 고기술 산업용 소재, 반도체 및 광학 부품 생산 / 글로벌 24개국 126개 거점 보유

◆ Trump International (2025~) : 골프장, 리조트 단지 개발

- 총 투자액: 25억불

- 진출 동향 : 2025년 5월, 흥옌성 내 골프장, 리조트 개발 시작

◆ **Cargill (1995~) : 사료 제조**

- 총 투자액: 1.6억불, 종업원 2,000명
- 진출 동향 : 전국 11개 공장 운영, 2023년 동나이에 고급 영양사료 공장 가동

◆ **Apple (~) : 에어팟, 아이패드, 애플워치 부품 제조**

- 총 투자액: -
- 진출 동향 : 폭스콘, 렉스쎄어 등 협력사·공급업체 35개사 진출(2016~2023년 기간 큰 폭 증가) / 2023년 회계연도 기준 베트남, 애플 공급업체 수 세계 4위, 동남아 內 1위

◆ **Pepsico (~) : 식음료 제조 및 생산**

- 총 투자액: -
- 진출 동향 : 현지에 펩시코푸드베트남(PepsiCo Foods Vietnam)으로 식음료 공장 투자 / 전국 5개 공장 보유하며 6번째 통안성 공장은 2026년부터 가동 예정, 1.3만명 고용 / 일본 Suntory Group과 합작 제휴

◆ **Chubb (2005) : 보험**

- 총 투자액: 미정
- 진출 동향 : 세계 최대 규모 상장 손해보험 회사, 2005년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2025년 3월, 베트남-태국 기반 보험사인 리버티 뮤추얼 인수 추진 중

2. 중국의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 외교적 기반 및 제도적 협력 현황

- 양국 관계는 사회주의 체제와 정치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나, 중월전쟁, 남중국해(동해) 분쟁 등 역사·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협력과 긴장이 병존하고 있음
-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1950년 베트남을 승인하고 베트남 전쟁 시 군사·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1970년대 들어 미중관계 개선, 해양 영유권 문제, 중월전쟁, 화교 추방 등으로 양국 관계 소원해짐
- 이후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 캄보디아 철군, 외교적 노력을 통해 1991년 관계 정상화. 양국은 다수의 경제협정과 공동성명을 통해 협력 기반 확대
-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특히 철도·에너지·기초 인

프라 등 분야에서 정부-민간 차원의 협력 진행 중

- 양국 간에는 ‘당 대 당 관계’ 채널이 긴밀히 작동되고 있으며, 육상 경계 및 해양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한 정기 협의제도 가동 중. 민간경제 협력 채널로는 중국상공회의소 등이 있음

<베트남-중국 간 주요 외교일지>

날짜	주요 내용
1950.1	외교관계 수립
1975.4	베트남 통일
1979	중월전쟁으로 양국 관계 단절
1991	관계 정상화 및 육상 국경선 정리
1999.12	베트남-중국 육상국경획정조약 체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및 ‘16자 원칙(장기안정, 미래지향, 선린우호, 전면협력)’에 합의
2008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양국 간 육로국경획정 완료
2011	응우옌 푸 쯙 총서기장 중국 방문
2014.5	황사군도(서사군도) 인근 시추선 설치로 양국 갈등 고조(베트남 내 과격 반중 시위 발생)
2015.3	응우옌 푸 쯙 총서기장 중국 방문 해 관계 안정화 모색
2015.11	시진핑 주석 베트남 답방 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재확인 *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합의 노력
2017	응우옌 푸 쯙 총서기장 중국 방문 시진핑 주석 베트남 방문
2020	베트남 중국 수교 70주년
2022.10	응우옌 푸 쯙 총서기장 중국 방문 * 시진핑 주석 집권 3연임 확정 후 첫 외국 정상으로 방중 *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13개 주요 협정 체결
2023.12	시진핑 주석 베트남 방문 ▲정치적 신뢰 ▲안보·국방협력 ▲경제 실질협력 ▲사회기반 확대 ▲다자협력 강화 ▲갈등관리 등 6대 협력 방향 합의
2024.8	또 럽 서기장 중국 방문
2025.4	시진핑 주석 베트남 방문(수교 75주년) ▲외교부·국방부·공안부 간 대화 장관급 격상 ▲철도협력위원회 설립 합의 ▲남중국해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등 * 양국 부처, 기관, 지자체간 45건의 협력협정 체결

□ **주요 협력 분야 및 현황**

① **교통·인프라 및 국경경제 협력**

- 2024년 또 럽 서기장의 중국 방문 때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철도·고속

도로·국경 통과 인프라·세관 등 양국 간 연결성 강화에 합의함

- 이와 함께, 국경경제 협력 확대, 스마트 국경 게이트 구축, 디지털 금융·위안화 결제 확대 등도 협력 의제에 포함됨
- 베트남 국회는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노선 등 중국과 연결되는 주요 철도 인프라 사업을 승인하고 2030년 완공·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
- 2025년 4월, 시진핑 주석 베트남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철도 및 도로 분야에서 다수의 협력 문서 체결돼, 양국 간 교통 분야 협력 기대됨

<시진핑 주석 베트남 방문 당시 협력 문서(철도·도로 분야)>

분야	체결문서	내용
철도	베트남 건설부-중국 국가발전개혁위 간 MOU	베-중 철도 공동협력위원회 설립, 우선 추진 철도사업 신속화
	베트남 건설부-중국 국제개발협력기구 간 회의록(working minutes)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현장 조사 계획 및 타당성조사 기술 지원
	양국 정부 간 공식서한 교환(2건)	표준궤 노선(동당-하노이, 몽까이-하롱-하이퐁) 계획 지원 및 타당성조사 준비 지원
도로	양국 정부 간 협정	탄투이(베)-텐바오(중) 국제 국경관문 교통인프라 공동 건설
	양국 정부 간 의정서	인력·차량·자재 등 국경 간 이동 절차 간소화
	베트남 건설부-중국 교통부 간 MOU	도로 기술 표준 수립, 신기술·자재 개발, 건설·유지보수 협력

② 에너지·자원

- 중국은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생산(TanRai, Nhan Co), 투엔하이 1호 화력발전소(중국수출입은행), 몽즈엉 2호 화력발전소(AES 등), 송봉4 수력발전소(ADB)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 진행해 왔음
-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중심의 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2025년 4월 중국전력공정설계그룹(CPECC)은 베트남전력공사(EVN)와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구축, 기술 이전 등 주요 협력 방향을 설정
- 한편 중국의 화디엔그룹(Huadian Group)은 베트남 내 바이오매스·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계획을 밝혔으며, JA솔라, 트리나솔라(TRINA Solar) 등 중국 태양광 선도기업도 베트남 내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③ 첨단 산업 기술 협력

- 베트남과 중국은 고위급 교류, 협력 MOU 체결, 민간기업 투자 등을 통해 AI, 반도체,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 중
- 특히 2025년 4월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 당시 체결된 45건의 경제협력 합의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경제, 녹색기술 등도 주요 협력 안건으로 포함됨
- BOE, 럭스웨어 등 중국 주요 첨단 전자기업과 체리·지리 등 전기차 기업이 투자 확대 및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진출 본격화 중

□ 중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 및 특징

- 미중 무역분쟁 본격적으로 촉발된 2018년 이후 중국의 對베트남 투자 증가.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은 베트남 10대 투자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히 팬데믹 이후 중국 내 제조환경 악화로 수출 중심인 중국 제조기업들의 베트남으로의 탈중국 공장 이전사례가 가속화됨
- 최근 3년간 중국의 對베트남 투자 중 제조업 비중은 약 83.3%로, 전체 제조업 투자 규모 면에서 한국, 싱가포르에 이은 3위. 이러한 중국 제조업 투자 증가 추세는 기존 강자인 한국, 일본, 대만뿐 아니라 베트남 현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 중국 투자는 주로 섬유, 신발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중국의 베트남 투자는 전기·전자, IT, 에너지, 기계, 화학, 전기자동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상당히 집중돼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임
- 중국 투자는 산업인프라 개선과 시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임금 문제, 전력 부족,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아울러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에 대한 미국 규제 강화와 반덤핑·상계관세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22년 ~ 2025년 3월 산업 분야별 중국의 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US\$ 백만, 건)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투자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제조·가공	866	6,586	409	2,843	443	345	9,774	83.4%
부동산개발	36	699	13	7	21	38	744	6.3%
건설	44	19	19	12	30	520	552	4.7%
도·소매, 유통, 수리	756	277	58	30	523	112	419	3.6%
용수처리 및 공 급	3	61	-	-	1	0	62	0.5%
전문과학기술	88	19	13	6	57	32	57	0.5%
기타	-	-	-	-	-	-	-	-
총계	1,945	7,744	536	2,900	1,236	1,077	11,721	100%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2022년 ~ 2025년 3월 중국의 베트남 신규 투자 주요 프로젝트>

(단위: US\$)

순번	투자프로젝트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투자지역	투자일
1	Shandong HaoHua Tire	타이어제조	7.8억	Binh Phuoc성(남부)	2023.05
2	BOE	컴퓨터부품	2.7억	Ba Ria-Vung Tau성(남부)	2024.01
3	DELI Group	사무용품제조	2.7억	Hai Duong성(북부)	2023.11
4	PEGAVISION	압축렌즈	2.0억	Thai Binh성(북부)	2023.09
5	HAINAN LONGI GREEN ENERGY	배터리	1.4억	Bac Giang성(북부)	2023.11
6	BOVIET SOLAR	태양광 부품	1.2억	Hai Duong성(북부)	2023.11
7	RADIANT OPTO-ELECTRONICS	전자부품	1.2억	Nghe An성(북부)	2023.12
8	NBDC SINGAPORE	가전	8.0천만	Dong Nai성(남부)	2023.12
9	KINGFA SCIENCE & TECHNOLOGY	산업원료	8.0천만	Dong Nai성(남부)	2023.07
10	XIAMEN SOLEX HIGH-TECH	플라스틱가공	8.0천만	Quang Ninh성(북부)	2024.01
11	SUS SANGHAI	소각시설	6.0천만	Ninh Binh성(북부)	2023.07
12	XIAMEN SUNRISE GROUP	자동차부품	5.5천만	Quang Ninh성(북부)	2023.03
13	CAPITAL HOLDING	부동산개발	5.4천만	Thai Binh성(북부)	2023.10
14	Smart Shirts	의류	5.1천만	Thai Binh성(북부)	2024.09
15	ZHEJIANG MUSTANG BATTERY	배터리	4.6천만	Binh Phuoc성(남부)	2024.12
16	Pourin Special Welding	건축자재제조	4.1천만	Hai Phong시(북부)	2024.01
17	HISENSE VISUAL TECHNOLOGY	기계류	4.0천만	Dong Nai성(북부)	2024.05

18	XIELONG	섬유	4.0천만	Nam Dinh성(북부)	2024.03
19	Guoguang Electric	전자부품	4.0천만	Quang Nam성(중부)	2024.01
20	TIANNENG INVESTMENT	배터리	3.9천만	Nghe An성(북부)	2024.12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주요 중국 기업 진출 현황

◆ **Greenworks (2018~)** : 정원용 기기 및 플라스틱, 금속 부품 제조

- 총 투자액 : 2억불, 고용자 5,000명
- 진출 동향 : 2023년 착공, 부지 20ha, 1단계 설계 및 조립 능력 연간 1억 400만 개 이상

◆ **JA Solar(2022~)** : 태양광 셀 및 구성품 제조

- 총 투자액 : 9.7억불
- 진출 동향 : 2016년 베트남 진출 후 북강성 내 4개 프로젝트 보유. 주요 생산능력 실리콘 봉 2.5GW/년, 실리콘 웨이퍼 5GW/년, 고효율 태양광 셀 5GW/년

◆ **Billion Industrial (2017~)** : 폴리에스터 필름

- 총 투자액 : 2.2억불. 종업원 1,000명
- 진출 동향 : 고품질 플라스틱 필름, 시트, PET 칩 생산 및 수출. 중국 Fujian Billion Polymerization Fiber Tech. Ind. Co. Ltd 산하 기업으로 20ha 생산공장에서 POY, FDY, DTY 등 합성 섬유 연 70만 톤 생산

◆ **Yong Jin Metal (2019~)** : 스테인리스강 제조

- 총 투자액 : 1.3억불. 고용자 : 2,000명
- 진출 동향 : WHA 산업단지(응에안) 내 12.6ha, 스테인리스강 고급 코일 생산. 생산능력: 1차 라인 18만 톤/년, 2차 라인 8만 톤/년. 1단계 2023년 4분기 가동, 2·3단계 2026년 3분기 완료 예정. 베트남 내 2번째 투자 프로젝트(1번째: 띠엔장성 9.2ha, 1억 3,250만 달러, 2022년 3월 가동)

◆ **Hao Hua (2023~)** : 타이어제조

- 총 투자액 : 5억불, 고용자 1,600명
- 진출 동향 : 43ha 부지, 2025년 3분기 착공 및 가동 예정 / 생산능력: Radial 철강 및 전철강 타이어 연 1,440만 세트, 연 매출 7억 7,000만 달러 예상

◆ **Deli Group (2019~)** : 문구류 생산

- 총 투자액 : 6.2억불, 고용자 10,000명
- 진출 동향 : 2023년 8월 착공 및 2023년 11월 본격 가동 중

◆ **Bo Viet Solar (2013~)** : 태양광 셀

- 총 투자액: 1.2억불, 종업원 1,000명
- 진출 동향 : 태양광 셀 및 모듈 제조 능력 3GW/연, 개발면적 20ha
- ◆ BOE Group (2020~) : 휴대폰, TV 및 각종 전자기기 부품
- 총 투자액 : 2.8억불, 종업원 4,000명
- 진출 동향 : TV, 고해상도 컴퓨터 모니터, 전자부품, 플라스틱 부품 제조 및 조립, 푸미 3 산업 단지 내, 연 1억 3,470만 대 생산 목표(추산 매출액 연 10억불), 베트남 내 두 번째 BOE 투자 프로젝트 (첫 번째는 2019년 동나이성 가동 개시)

□ 홍콩의 베트남 투자 진출 현황

- 베트남 투자 통계에서 홍콩은 별도 분류되나, 홍콩 투자 상당수가 중국 본토 기업과 연계되며 최근 3년간에는 제조(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
-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 기업 투자는 미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부동산·인프라·통신 분야 등 비제조 분야에서도 직접투자와 현지 기업 M&A를 통한 자본 진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2022년 ~ 2025년 3월 산업 분야별 홍콩의 對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US\$ 백만, 건)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투자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제조·가공	471	6,219	287	3,517	60	291	10,027	88.3%
부동산·경영	17	173	8	218	12	19	410	3.6%
전력 생산·판매	1	91	2	163	-	-	253	2.2%
도·소매, 유통, 수리	215	110	35	7	74	23	141	1.2%
전문과학기술	46	16	16	28	32	56	100	0.9%
용수처리 및 공 급	-	-	1	100	-	-	100	0.9%
기타	-	-	-	-	-	-	-	-
총계	832	6,721	370	4,224	245	409	11,353	100%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2022년 ~ 2025년 3월 홍콩의 베트남 신규 투자 주요 프로젝트>

(단위: US\$)

순번	투자프로젝트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투자지역	투자일
1	JINKO SOLAR HONG KONG	태양광패널	15억	Quang Ninh성(북부)	2023.10
2	GOERTEK HONG KONG	전자부품	2.8억	Bac Ninh성(북부)	2023.03
3	Gokin Solar	태양광패널	2.7억	Quang Ninh성(북부)	2024.02
4	GREENWICH MANAGEMENT	금속	1.6억	Nghe An성(북부)	2023.08
5	Summit Optical Investment	전자부품	1.5억	Nghe An성(북부)	2023.09
6	EVERWIN PRECISION	플라스틱류	1.1억	Nghe An성(북부)	2023.12
7	TRAN DE WIND POWER	풍력발전	9.0천만	Soc Trang성(남부)	2023.06
8	NEOSCM	기계류	8.8천만	Binh Thuan성(남부)	2024.11
9	SHUNSIN TECHNOLOGY	전자부품	8.0천만	Bac Giang성(북부)	2024.06
10	TONLY ELECTRONICS	전자부품	7.0천만	Quang Ninh성(북부)	2024.12
11	LC FUTURE CENTER	회로기판	6.0천만	Ha Nam성(북부)	2024.11
12	CE LINK	SMT	6.0천만	Hai Duong성(북부)	2023.03
13	XINWEI ELECTRONIC	전자부품	5.8천만	Bac Giang성(북부)	2024.10
14	SRS	섬유	5.2천만	Thai Binh성(북부)	2024.06
15	Nan Cheung Knitting	의류	4.5천만	Thanh Hoa성(북부)	2023.08
16	MASTER HERO MANUFACTURING	완구류	4.5천만	Thai Binh성(북부)	2023.12
17	LENS	렌즈류	4.2천만	Bac Giang성(북부)	2023.08
18	RISING TEAM ENTERPRISES	섬유	3.8천만	Tay Ninh성(남부)	2023.06
19	TIANHAI INTERNATIONAL	섬유	3.0천만	Doang Nai성(북부)	2024.10
20	XINAO	섬유	3.0천만	Tay Ninh성(남부)	2023.04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주요 홍콩 기업 진출 현황

◆ **SUNWAH (1970~)** : 수산물 가공, 부동산 개발, 금융 서비스, 커피 및 농산물 수출 등

○ 총 투자액 : 50억불

○ 진출 동향 : 홍콩에 본사를 둔 다국적 복합기업으로, 정보기술, 교육, 미디어, 환경 기술 및 헬스케어 등 8개 주요 분야에서 사업 중. 베트남에서 50년 넘게 투자 경험 보유

◆ **JINKO SOLAR (2021~)** : 태양광 셀 제조

○ 총 투자액 : 25억불, 종업원 8,000명

○ 진출 동향 : 전 세계 160,000명 이상 직원, 193개 자회사, 35개국 생산기지 보유, 연평균 매출 약 1,472억 달러

◆ **BYD 전자 (2021~)** : 태블릿 PC, 칩, 4G-5G 모듈, 드론 및 기타 전자부품 생산 및 조립

○ 총 투자액 : 2.7억불. 종업원 11,000명

○ 진출 동향 : 베트남 내 태블릿 PC, 칩, 4G-5G 모듈, 드론 및 기타 전자부품 생산 및 조립 공장

운영 중이며, 추후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10억불 투자 계획 중

◆ **Everwin Precision (2021~) :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 총 투자액 :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공장(2억불), Everwin Precision(1.1억불) 2개 공장
- 진출 동향 : 자동차 스마트 부품,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전선 및 케이블, 안테나 등 연간 수천만 개 제품 생산 계획 (2027~2030년 단계별 가동 예정)

◆ **SUNNY Group (2001~) : 자동차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스마트 라이트, 광학 렌즈**

- 총 투자액 : 1.5억불, 종업원 20,000명
- 진출 동향 : 연간 6,000만 대 자동차 카메라 생산 능력, 2025년 4분기 가동 예정

◆ **Esquel (2001~) : 의류 제조**

- 진출 동향 : Tommy Hilfiger, Nike, Gap 등 글로벌 브랜드 주요 협력사로, 빈증, 동나이, 호아빈에 3개 공장 보유

◆ **HSBC (2009~) : 금융, 은행**

- 진출 동향 : 홍콩-상하이 은행 계열사로, 베트남 내 100% 외국자본 은행 최초 설립 및 운영, 베트남 내 주요 외국계 은행 중 하나

◆ **FWD (2007~) : 보험업**

- 진출 동향 : 생명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노동자 보험 서비스 제공. 3대 보험사

□ 대만의 對베트남 투자 진출 현황

- 최근 대만의 對베트남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중 무역 갈등 및 이로 인한 제조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한 중국 내 대만 제조공장 이전 수요 때문으로 파악됨
- 대만 제조산업은 실제로 중국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전자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탈중국 베트남 진출 형태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음
- 특히, FOXCONN 등 애플 아이폰 제조사 및 협력사의 대규모 투자가 베트남 북부지역(박닌성, 박장성)에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 중국에 생산 시설을 둔 대만계 기업들이 주도
- 대만의 제조산업 구조상 기타 제조업 분야의 투자는 약세를 보이며, 대부분 전자기기 및 컴퓨터 제조업에 집중.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탈중국 및 베트남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베트남 진출 투자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인프라 부재로 인해 대만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고 있지 않으나, 기타 첨단 산업 분야인 위성 및 통신장비에 있어서는 Wistron NeWeb(스타링크 라우터 및 네트워크 장비), Universal Microwave Technology(위성 부품) 등이 투자 진행 중

<2022년 ~ 2025년 3월 산업 분야별 대만의 對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US\$ 백만, 건)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투자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제조·가공	249	4,192	219	2,034	199	607	6,833	93.7%
부동산개발	13	158	8	(6)	17	10	162	2.2%
도·소매, 유통, 수리	189	52	40	15	251	56	122	1.7%
물류, 창고	19	47	3	2	20	2	52	0.7%
정보통신	16	4	9	18	15	3	25	0.3%
전문과학기술	20	7	10	8	40	7	23	0.3%
기타	-	-	-	-	-	-	-	-
총계	535	4,505	307	2,085	583	700	7,290	100%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2022년 ~ 2025년 3월 대만의 對베트남 신규 투자 주요 프로젝트>

(단위: US\$)

순번	투자프로젝트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투자지역	투자일
1	LITE-ON TECHNOLOGY	컴퓨터부품	6.9억	Quang Ninh성(북부)	2023.10
2	Tripod Technology	PCB	2.5억	Ba Ria-Vung Tau성(남부)	2024.03
3	QST INTERNATIONAL	보안장치	1.6억	Quang Ninh성(북부)	2023.02
4	FOXLINK INTERNATIONAL	전자부품	1.3억	Da Nang시(중부)	2023.09
5	INVENTEC	휴대폰	1.2억	Hanoi시(북부)	2024.03
6	NIEN MADE ENTERPRISE	가구류	1.2억	Phu Tho성(북부)	2024.11
7	QUANTA COMPUTER	컴퓨터부품	1.2억	Nam Dinh성(북부)	2023.05
8	LIOHO MACHINE	자동차부품	7.5천만	Vinh Phuc성(북부)	2023.06
9	JOHNSON HEALTH TECH	스포츠용품	7.2천만	Bac Ninh성(북부)	2024.11
10	MITAC INTERNATIONAL	카메라모듈	6.6천만	Hanoi시(북부)	2023.12
11	COREMAX	화학	6.5천만	Quang Ninh성(북부)	2023.10
12	GIANT MANUFACTURING	자전거	6.0천만	Binh Duong성(남부)	2023.09
13	Taiwan Surface Mounting Technology	PCB	5.0천만	Ha Nam성(북부)	2023.02
14	IBARA SEIKI	자동차부품	5.0천만	Hung Yen성(북부)	2023.12

15	Senao Networks Inc	전자부품	4.5천만	Ha Nam성(북부)	2023.09
16	JIA WEI LIFESTYLE	플라스틱제품	4.2천만	Nam Dinh성(북부)	2023.09
17	Weilina	신발	4.1천만	Thanh Hoa성(북부)	2024.04
18	Weilina	신발	3.9천만	Thanh Hoa성(북부)	2024.04
19	Lac Ty 2	신발	3.2천만	Long An성(남부)	2024.09
20	NAN JUEN INTERNATIONAL	기계설비	3.0천만	Long An성(북부)	2024.07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베트남 진출 주요 대만 기업 현황

◆ FOXCONN (2007~) : 전자부품(애플 협력사)

- 총 투자액 : 약 22억불, 고용자 수 : 8만 명
- 진출 동향 : 베트남 내 박닌과 박장에 핵심 공장 운영. 최근 팜닌에 가전제품 생산 공장(푸캉 테크놀로지, 후위, 컴피티션 팀 테크놀로지) 신규 투자. 응에안성에 1억 달러 규모 신규 공장 설립 계획 발표. 3억 8,300만 달러 규모 인쇄회로기판(PCB) 생산 공장 투자 진행 중

◆ Pegatron (2020~) : 전자부품(애플 협력사)

- 총 투자액 : 8억불, 종업원 약 2만 명
- 진출 동향 : Apple의 주요 전자 부품 보조 생산업체, Foxconn, Wistron과 함께 iPhone 주요 생산업체. 중국과 인도에서 iPhone 3대 생산사 중 하나. 전자제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기기, 전자부품, PCB 생산. 향후 투자금 증액 계획.

◆ Compal (2007~) : 컴퓨터 주변기기, 전자제품 등

- 총 투자액 : 5억불, 종업원 10,000명
- 진출 동향 : Dell 노트북 주요 생산, Amazon 등 글로벌 고객과 협력, 5G 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 베트남 내 생산 확대 예정.

◆ Wistron Infocomm (2020~) : IT 및 통신기기 설계 및 제조, 노트북 제조

- 총 투자액 : 3.6억불, 종업원 : 6,500명
- 진출 동향 : IT 및 통신기기 설계 및 생산 (서버, 노트북, 태블릿 등), Dell, Apple, Acer, HP, Lenovo, Sony 등 유명 브랜드 ODM/OCM 생산. 2025년 1월 가동 예정인 '빅토리 II' 프로젝트, 최첨단 전자제품 생산공장, SpaceX 생태계 일부로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용 신규 부품 생산 허브

◆ Electronic Tripod (2023~) : 전자회로 및 PCB(인쇄회로기판) 제조

- 총 투자액 : 2.7억불, 고용자 수 : 1,000명
- 진출 동향 : 세계 10대 PCB 생산기업 중 하나, 월 1,000만 m² 생산능력, 연간 수익 수십억 달러, 직원 3만 명 규모. 베트남에 2023년 진출, 현재 2번째 공장 차우득에서 건설 중. 2026년 3분기 1단계 가동 예정, 2029년 4분기 2단계 가동 예정. 생산능력 총 372,000 m² 규모, PCB/년 (2단계 완공시)

◆ SUNJADE (2008~) : 운동화 생산

- 총 투자액: 6천만불
- 진출 동향 : 글로벌 브랜드 신발 OEM 생산, 연 2,400만 켤레 생산 능력

◆ **Lite-On Technology (2024~)** : 컴퓨터 부품, 광학 기기, 조명기기 등

- 총 투자액: 6.5억불, 종업원 4,800명
- 진출 동향 : 세계 10대 전자 부품 제조사 라이트온 그룹의 투자. 연간 생산량 약 1억 2,400만 개, 1단계 2025년 11월 완공 예정.

◆ **Boltun (2023~)** : 자동차용 볼트, 너트, 튜브 등 금속부품 제조

- 총 투자액: 1.7억불, 종업원 2,500명
- 진출 동향 : 2023년 투자 허가, 총 생산능력 60,000톤/년, 1단계 2023년 2분기 착공. 대만 볼턴 그룹은 대만, 중국, 독일 등에서 12개 공장 운영 중이며 베트남 공장은 동남아 공급망 확장 및 장기 성장 전략 핵심.

◆ **Quanta Computer (202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생산

- 총 투자액: 5천만불, 종업원 3,000명
- 진출 동향 : 생산능력: 2025년 260만 대, 2026년 360만 대, 2027년 400만 대, 2028년 450만 대 목표. 세계 8개국에서 8개 공장 운영. 베트남은 9번째 공장 및 첫 베트남 투자.

◆ **Formosa (2008~)** : 철강

- 총 투자액: 128억불, 종업원 수 : 12,000명
- 진출 동향 : 2008년 총 투자액이 약 100억 달러(1단계 연간 처리 용량 1,000만 톤 이상)로 시작된 손즈영 심해항 및 철강단지 프로젝트의 투자자, 2단계에서 자본금을 270억 달러(연간 처리 용량 2,000만 톤 이상)로 확대 계획. 총 사업 부지 면적은 약 2,000ha. 주요 사업 분야는 철강 제조 및 무역; 항만 사업; 시멘트 생산; 화력 발전소 및 수처리 시설 무역; 가스 플랜트의 건설, 설치, 운영 및 무역, 산업에 사용되는 압축 가스 및 액체 가스(산소, 질소 등) 판매; 코크스, 타르, 경질 원유 공정과 관련된 제품의 제조, 가공, 생산, 무역 및 수입 및 수출 등

3. 싱가포르의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 외교적 기반 및 제도적 협력 현황

- 싱가포르는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양국은 오랜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지속 강화해옴
- 2013년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2025년에는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양자 협력을 심화
- ‘베트남-싱가포르 연계성 장관급 회의’(Vietnam-Singapore Connectivity Ministerial Meeting) 개최 등 양국 정부 간 교류 정례화되어 있으며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도 빈번함

- 싱가포르는 최근 수년간 對베트남 연간 투자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한국에 이어 2위 투자국임. 또한, 양국은 역내 협의회를 통한 다자협력도 병행하며 디지털 전환, 에너지 연계 등에도 협력 기반 확대 중

<베트남-싱가포르 간 주요 외교일지>

날짜	주요 내용
1973.8	외교관계 수립
1996	리관유 총리, 베트남 내 최초의 싱가포르 산업단지(VSIP) 조성
2003	외교부 차관급 연례 정치 협의 매커니즘 설립
2004	21세기 베트남-싱가포르 포괄적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2012.9	응우옌 푸 쯡 총서기장 싱가포르 방문
2013.9	리센롱 총리 베트남 방문(수교 40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2017.3	리센롱 총리 베트남 방문 * 경제·국방·스마트시티·교육 협력 논의
2023.2	팜민찐 총리 싱가포르 방문 - 베트남-싱가포르 녹색-디지털 경제 협력 MOU 체결
2023.8	베트남-싱가포르 수교 50주년 리센롱 총리 베트남 방문
2025.3	또 럽 서기장 싱가포르 방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 * 베트남은 싱가포르가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CSP 체결한 국가 : 해저 케이블 개발 및 디지털 연결에 대해서도 협력 합의
2025.3	로렌스 왕 총리 베트남 방문

□ 주요 협력 분야 및 현황

① 무역투자 확대 통한 경제협력 심화

- 싱가포르는 對베트남 투자에서 1~2위를 다투는 상위 투자국으로, 자국 기업 외에도 제3국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싱가포르 투자의 대표 성공사례는 베트남-싱가포르 산업공단(VSIP)이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경제성장, 고용 창출, 산업 현대화에 기여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음
- * 1996년 남부 빈즈영성에 최초 설립 이후, 현재 전국 13개 성·시에서 18개 VSIP 조성 중. 초기에는 경공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스마트 물류, 친환경, 첨단제조 등 고도화되고 있음

<베트남 內 VSIP 현황>

VSIP	개시년도	면적
VSIP I - 빈즈엉	1996	500ha
VSIP II - 빈즈엉	2006	345ha → 1,000ha 확장
VSIP 박닌	2007	700ha
VSIP 하이퐁	2010	1,600ha
VSIP 꽝응아이	2013	1,746ha
VSIP 하이즈엉	2015	1,500ha
VSIP 응에안	2015	750ha
VSIP III - 빈즈엉	2018	1,000ha

② 해저 케이블 협력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연결 강화

-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디지털경제 협력 일환으로 해저 케이블, 디지털 연계성, 국가 간 데이터 흐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3월 또 럽 서기장의 싱가포르 방문 계기 공동성명에도 명시됨
- AI 및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대비해 베트남은 2030년까지 해저 케이블 10개 추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싱가포르 자산 운용사 Keppel과 베트남 대기업 Sovico 그룹은 양국 간 해저 광케이블 구축을 논의 중임
- * 현재 베트남의 국제 인터넷 인프라에 연결된 해저케이블이 5개에 불과
- 이외에도 2023년 4월, 베트남 국영 통신사인 비엠텔과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 (Singtel) 간 해저 케이블 구축을 위한 예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듯, 양국 간 디지털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이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③ 해양 및 항만 인프라 개발 협력

- 양국은 해양 및 항만 포함 물류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지속 확대
- 2023년, 베트남 사이공신항공사(SNP)와 싱가포르 PSA 그룹은 항만 개발, IT 시스템 고도화, 물류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항만 개발 및 공급망 연결성 강화를 위한 MOU 체결
- 싱가포르 YCH 그룹과 베트남 T&T 그룹은 합작을 통해 2040년까지 동남아 최초의 넷제로 복합물류항만인 Vietnam SuperPort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 이를 통해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음
- 2025년 3월 또 럽 당서기장은 싱가포르 방문 중 PSA 그룹의 파시르 판장 (Pasir Panjang) 항만을 시찰하고, 항만 현대화와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를 요청했으며, PSA 측도 적극적 협력 입장을 밝힘

□ 싱가포르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 최근 3년간 싱가포르는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제조업 부문은 전체 투자액의 약 50%를 차지함. 對베트남 제조업 투자 규모는 한국에 이어 2위임
- 싱가포르의 제조업 투자 강세는 자국 기업의 직접투자보다는 싱가포르의 금융 시스템을 활용한 외국 투자기업의 지주회사 경유 방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실제 싱가포르 투자로 집계된 프로젝트 중 한국, 대만, 미국 등이 주 투자자인 사례 다수(삼성전자 박닌 공장, 코카콜라, FOXCONN, INGRASYS 등)
- 싱가포르의 투자는 공단 개발 및 이와 연계된 물류 인프라, 신도시 개발 등을 패키지로 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공단 개발 업체인 VSIP의 경우, 싱가포르 국영 펀드(Semcorp)의 투자를 통해 베트남 내 주요 공단 개발사로 자리하고 있음(베트남 전역에 걸쳐 총 8개 공단 개발 및 운영 중)
- 싱가포르의 투자는 제조업과 부동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건수 당 투자액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가 많은 것이 특징

<2022년 ~ 2025년 3월 산업 분야별 싱가포르의 對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US\$ 백만, 건)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투자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제조·가공	323	7,389	177	3,793	74	556	11,738	50.0%
부동산개발	60	3,640	36	1,465	73	1,817	6,922	29.5%
전문과학기술	179	186	61	155	308	1,636	1,977	8.4%
물류, 창고	49	479	22	84	47	50	613	2.6%
도·소매, 유통, 수리	288	175	76	129	245	193	497	2.1%
정보통신	116	74	35	302	157	106	481	2.0%
의료보건	2	2	1	1	4	421	424	1.8%
기타	-	-	-	-	-	-	-	-
총계	1,152	12,150	448	6,204	1,068	5,292	23,466	100%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2022년 ~ 2025년 3월 싱가포르의 베트남 신규 투자 주요 프로젝트>

(단위: US\$)

순번	투자프로젝트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투자지역	투자일
1	INGRASYS	전자부품	6.2억	Bac Giang성(북부)	2023.01
2	MEGA TEXTILE	섬유	5.9억	Nghe An성(북부)	2024.11
3	FOXCONN	전자기기	5.5억	Quang Ninh성(북부)	2024.06
4	TRINA SOLAR CELL	태양광 패널	4.5억	Thai Nguyen성(북부)	2024.02
5	FOXCONN	전자부품 (PCB)	3.8억	Bac Ninh성(북부)	2024.06
6	BIEL CRYSTAL	렌즈제조	2.6억	Hai Duong성(북부)	2023.10
7	VICTORY GIANT TECHNOLOGY	전자부품 (PCB)	2.6억	Bac Ninh성(북부)	2024.06
8	VSIP	공단 조성	2.1억	Thai Binh성(북부)	2024.05
9	FOXCONN	전자부품 (PCB)	2.0억	Quang Ninh성(북부)	2023.06
10	SISTA PTE	부동산개발	1.9억	Hanoi시(북부)	2023.12
11	VSIP	공단 조성	1.6억	Nghe An성(북부)	2023.03
12	NITTO	LCD패널	1.3억	Hung Yen성(북부)	2023.05
13	SEA FUND I INVESTMENT	물류창고	1.2억	Dong Nai성(남부)	2024.01
14	INNOVATION TECH	공단 개발	1.1억	Binh Duong성(남부)	2024.06
15	CASSIA LOGISTICS HOLDINGS	물류창고	1.1억	Hung Yen성(북부)	2024.02
16	SAFFRON LOGISTICS	물류창고	1.0억	Dong Nai성(남부)	2024.12
17	Elite Solar Power	태양광 패널	1.0억	Ha Nam성(북부)	2023.11
18	FOXCONN INTERCONNECT TECHNOLOGY	전자부품	1.0억	Nghe An성(북부)	2023.04
19	YADEA	전기오토바이	9.8천만	Bac Giang성(북부)	2023.06
20	Crown Sai Gon	금속	9.4천만	Binh Duong성(남부)	2023.04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베트남 진출 주요 싱가포르 기업 현황

◆ **Delta Offshore Energy (2020~)** : LNG 발전

○ 총 투자액 : 40억불

○ 진출 동향 : 1단계: 800MW, 2024년 운영 예정 / 2단계: 3,200MW, 2027년 말 완공 예정, PPA 계약 협상, 환전 메커니즘, 신용 보증 등의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지연 중

◆ **VINA Capital (2018~)** : LNG 발전

○ 총 투자액 : 31.3억불

○ 진출 동향 : 롱안 LNG 발전소 I 및 II 프로젝트, 총 발전 용량 3,000MW 현재 타당성 조사(F/S), PPA 계약 협상, 전력 송전 연결 협약, PV Gas와 파이프라인 관련 협의 진행 중, PPA 계약은 2025년 말 체결 예정, 2026년 초 착공, 2029년 가동 예정

◆ **New Motion (2021~)** : TV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 총 투자액 : 1.9억불. 종업원 6,000명
- 진출 동향 : TV 및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연간 130만 장), 창고 및 공장 부동산 임대, 물류 보관 서비스 등 사업 진행

◆ **Mega Textile (2024~)** : 직물, 편직, 염색 원사 등

- 총 투자액 : 5.9억불. 고용자 : 15,000명
- 진출 동향 : 51헥타르 부지, 연간 생산량: 직물 6만 7,200톤, 편직 1만 300톤, 염색 원사 7,200톤, 벨트 1억 개, 의류 1억 3천만 벌, 반제품 220만 벌 등. 2025년 본격 공장 운영

◆ **Trina Solar Cell (2024~)** : 실리콘 웨이퍼, 태양광 셀 등

- 총 투자액 : 4.5억불
- 진출 동향 : 생산 규모 단결정 실리콘 봉 11,570톤/년,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5억 5,500만 개/년, 태양광 전지판 5억 6,000만 장/년

◆ **Ingrasys (2023~)** :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 총 투자액 : 6.2억불, 고용자 10,000명
- 진출 동향 : 2023년 8월 착공 및 2023년 11월 본격 가동 중

◆ **Victory Giant (2024~)** : 고정밀 PCB 제조

- 총 투자액: 2.6억불, 종업원 2,300명
- 진출 동향 : VSIP 박닌 II 산업단지 내 103,626m², 2026년 7~9월 시운전 및 2026년 10월 본격 가동 예정

◆ **VSIP (1996~)** : 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 사업

- 총 투자액: 30억불
- 진출 동향 : 베트남 내 총 18개 공단 개발 및 운영, 베트남 최대 공단 개발사,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주 투자자(Semcorp), 베트남 파트너사(BECAMEX). 총 개발 면적은 약 11,000ha

◆ **ILD Coffee (2021~)** : 커피 생산 및 가공, 유통 등

- 총 투자액: 1억불, 종업원 2,500명
- 진출 동향 : 연간 5,600톤 냉동 건조 인스턴트 커피 생산, 최신 추출 및 동결 건조 기술 보유

4.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 외교적 기반 및 제도적 협력 현황

- 일본은 동남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해 1952년 남베트남을 승인하고, 1973년 파리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베트남과 수교
- 전후 복구를 위한 원조를 제공했으나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중단했다가 80년대 상환 호전되자 대규모 원조 재개 및 투자와 교역 확대됨
- 90년대 들어 고위급 상호 교류 빈번, 경제 분야 중심으로 교류 확대되면서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23년에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정치·외교 협력이 강화됨
- 양국은 TPP 무산 이후 CPTPP를 공동 주도하며 역내 경제 통합을 지속 추진해왔고, RCEP, IPEF 등 다자 경제협력 틀에서도 긴밀히 협력 중임
- 일본은 베트남에게 최대 ODA 공여국이자, 4대 교역국, 3대 투자국으로, 주로 제조업, 인프라, 유통 분야에 진출이 집중돼 있음
- 양국 간 민간경제 협력 채널로는 JETRO, JICA, JCCI 등이 있어, 투자 환경 개선, 정보 제공, 정책 대화 등 지원 역할을 수행 중임

<베트남-일본 간 주요 외교일지>

날짜	주요 내용
1973년	외교관계 수립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2011년 10월	일본, G7 가운데 최초로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
2013년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베트남 방문(취임 직후 첫 해외방문지)
2014년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확대(extensive)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18년	하노이 정상회담: 응우옌 쉰언 폭 총리-아베 신조 총리
2020년 10월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베트남 방문(취임 직후 첫 해외방문지)
2021년 11월	베트남 판민찐 총리, 일본 방문
2022년 4월	일본 기시다 총리, 베트남 방문
2023년 5월	판민찐 총리, 히로시마 G7 확대회의 참석차 일본 방문 610억엔(4억 4500만달러) 규모의 3개 ODA프로젝트 협약 체결-코로나 경제회복, 교통 인프라 개선 및 농업 개발
2023년 11월	베트남 보 반 트엉 국가주석, 일본 방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2024년 10월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베트남 팜 민 쯔 총리와 회담
2024년 12월	베트남 쯔 타잉 먼 국회의장 일본 방문
2025년 4월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베트남 방문 국방·장비·과학기술 중심 협력 강화 합의

□ 주요 협력 분야 및 현황

① ODA 및 개발협력

- 일본은 베트남 최대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등을 통해 협력 중
- 2023년 5월 기준, 일본은 누적 2조 9,800억 엔(216억 달러) 규모의 ODA를 제공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ODA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임
- 베트남은 최근 남북고속철도 사업(673억 달러 규모)에 대한 일본의 투자 및 ODA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양국 간 대형 인프라 협력 확대 가능성도 주목됨

<일본의 對베트남 주요 ODA 프로젝트>

분야	주요 사업 및 성과
교통·인프라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닛탄 대교 및 대교-공항 연결 고속도로, 호치민시 동서고속도로, 하이반 터널, 메콩델타 지역의 건너 태교 등
보건	하노이 박마이 병원, 호치민시 쯔레이 병원, 후에 중앙병원 등
교육	깐터대학교·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베트남일본대학교 등 교육인프라 및 인력 양성

② 첨단기술 및 과학기술 협력

- 2025년 4월 일본 이시바 총리의 베트남 방문 계기로, 양국 총리는 과학기술, 혁신, 고급 인재 양성 부문에서 협력 확대에 합의
- 구체적으로 ‘일본-아세안 과학기술혁신 협력 프로그램’(NEXUS)을 통해 반도체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베트남 내 반도체 관련 고급 인재 육성 계획
- 이와 함께, 일본은 베트남의 첫 레이더 지구관측위성 ‘로투스아트-1’(LOTUSat-1) 발사 프로젝트 등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진행 중임

③ 친환경 산업 및 탈탄소 협력

- 베트남은 일본과 협력을 통해 친환경 산업과 탈탄소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여러 협력 논의 이뤄지고 있음
- 일본은 2022년부터 G7 공약을 기반으로 ‘아시아 탄소제로 공동체’(AZEC)를 출범시켰으며, 베트남 포함 아시아 국가들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기술 및 투자 협력을 추진 중임
- 일본 민간 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활발하게 전개돼, 일본 EREX Corporation은 베트남 내 바이오매스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마루베니 그룹은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함께 베트남 해상풍력 개발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는 최근 3년간 전체 투자 규모 및 제조업 분야 투자에 있어서 한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다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 투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다만, 최근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로의 전략적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데,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베트남 정부의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전략과 맞물려 일본 기업의 투자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 강화와 함께 장비 제조업체들의 베트남 내 생산시설 확장 및 신규 투자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에너지 및 발전 분야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 ODA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짐
- 유통 분야에서는 AEONMALL 등 종합 유통 채널의 지방 도심 지역 확장과 함께, 과거부터 선제적인 진출이 이루어진 소매·식품 유통 분야에서도 현지 기업 M&A 및 유통망 구축 등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자동차·가전 등 기존 제조 분야에의 증액 투자나 생산 확대는 제한적. 일본 점유율은 한국, 중국, 베트남 현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

<2022년 ~ 2025년 3월 산업 분야별 일본의 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US\$ 백만, 건)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투자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제조·가공	157	2,075	262	2,341	80	406	4,821	32.0%
전력 생산·판매	11	4,112	5	47	3	20	4,179	27.7%
부동산경영	25	1,221	16	60	23	1,484	2,766	18.3%
금융, 보험	-	-	-	-	7	1,578	1,578	10.5%
도·소매, 유통, 수리	206	322	62	229	200	331	882	5.8%
전문과학기술	145	95	51	69	128	51	216	1.4%
기타	-	-	-	-	-	-	-	-
총계	797	8,060	499	2,933	683	4,092	15,086	100%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2022년 ~ 2025년 3월 일본의 베트남 신규 투자 주요 프로젝트>

(단위: US\$)

순번	투자프로젝트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투자지역	투자일
1	Thai Binh성 LNG발전 (KYUDEN INTERNATIONAL)	발전	19.9억	Thai Binh성(북부)	2023.12
2	Aeonmall	쇼핑몰	2.1억	Quang Ninh성(북부)	2024.07
3	NVY Vietnam	부동산개발	1.9억	Hai Phong시(북부)	2024.05
4	Aeonmall	쇼핑몰	1.8억	Thanh Hoa성(북부)	2024.08
5	Tosoh Corporation	화학제조	1.7억	Ba Ria-Vung Tau성(남부)	2024.03
6	Paragon	부동산개발	1.3억	Dong Nai성(북부)	2024.10
7	EREX YEN BAI	발전소	1.2억	Yen Bai성(북부)	2024.05
8	ACECOOK	가전제조	8.7천만	Hung Yen성(북부)	2023.11
9	TOKUYAMA CORPORATION	폴리실리콘	6.1천만	Ba Ria-Vung Tau성(남부)	2024.07
10	IKO THOMPSON	기계류	5.7천만	Quang Ninh성(북부)	2024.02
11	TENMA	플라스틱류	5.6천만	Quang Ninh성(북부)	2024.04
12	YOKORE	물류창고	5.2천만	Long An성(남부)	2023.02
13	FUJIYA	식품	3.9천만	Long An성(남부)	2024.02
14	SAKURAI	섬유	3.8천만	Thanh Hoa성(북부)	2023.05
15	TAMAGAWA SEIKI	전자기기	3.5천만	Quang Ninh성(북부)	2023.08
16	MUJI RETAIL	유통	3.2천만	Ho Chi Minh시(남부)	2024.10
17	TAMRON	광학기기	3.1천만	Vinh Phuc성(북부)	2023.05
18	SUNERGY WAFER	실리콘웨이퍼	3.0천만	Hung Yen성(북부)	2024.01
19	NICHIREI TBA LOGISTICS	물류창고	2.9천만	Long An성(남부)	2023.04
20	AEONMALL	유통	2.9천만	Da Nang시(중부)	2024.12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주요 일본 기업 진출 현황

◆ TOYOTA (1995~) : 자동차 생산 및 판매

- 총 투자액 : 약 5,000만불, 종업원 : 1,492명, 연간 생산능력 70,000대
- 진출 동향 : 2024년 토요타(렉서스 포함) 판매량은 68,128대로 2023년 대비 15% 증가

◆ HONDA (1996) : 오토바이 및 자동차 엔진 제조 및 조립

- 총 투자액 : 6,300만불, 종업원 : 10,032명, 연간 생산능력 자동차 30,000대, 오토바이 250만 대
- 진출 동향 :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 점유율 70% 이상 / 베트남에 3개 공장 운영

◆ YAMAHA (1998) : 오토바이 제조 및 조립

- 총 투자액 : 2,600만불, 종업원 : 4,500명
- 진출 동향 :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 주요 플레이어 / 베트남에 2개 공장 운영

◆ Denso (2001~) :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총 투자액 : 약 8,000만불, 종업원 2,800명
- 진출 동향 : 전 세계 160,000명 이상 직원, 193개 자회사, 35개국 생산기지 보유, 연평균 매출 약 1,472억 달러

◆ Panasonic (2006~) : 가전, 시스템 네트워크, 산업용 디바이스, 일렉트릭 제품

- 총 투자액 : 2.4억불. 종업원 7,000명
- 진출 동향 : 파나소닉 가전 (냉장고, 세탁기), 파나소닉 시스템 네트워크 (통신기기), 파나소닉 산업용 디바이스 (자동차용 전자부품), 파나소닉 일렉트릭 워크스 (배선기구, 실내 공기질 장비 등)

◆ AEON MALL (2013~) : 대형 쇼핑몰 개발, 임대 및 운영

- 총 투자액 : 5.5억불. 고용자수 : 1,430명, 매출액 약 16억불
- 진출 동향 :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등 전국 9개 대형 쇼핑몰 운영, 추후 20개로 확장 예정, 베트남 내 대형 유통채널로서 외국 투자기업으로 롯데와 함께 선도

◆ CANON (2001~) : 프린터, 스캐너 및 관련 부품 생산(수출)

- 총 투자액 : 3억불, 총매출 : 약 15억불 ('24년 기준)
- 종업원 23,000여 명
- 진출 동향 : 베트남 북부 지역 3개 생산 공장 운영 중

◆ MITSUBISHI (2016~) : 종합상사, 금융, 에너지, 부동산, 화학, 기계, 물류, 소매 등

- 진출 동향 : 베트남 내 투자는 빈홈 부동산, 봉양 화력발전, 메트로 등 주요 프로젝트, 10억 달러 규모 투자 진행 중

◆ **SUMITOMO (2007~)** : 부동산, 도시철도,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물류 등

○ **총 투자액**: 4억불, 종업원 2,500명

○ **진출 동향** : 주요 투자 프로젝트는 하노이·흥옌·빈푹 3개 산업단지 (총 1,012ha), 후지마트 슈퍼마켓, 호치민시 도시철도 1호선 등

◆ **TOSHIBA (2008~)** : 산업용 발전기, 전동기, 전기자동차용 구동기 등 생산

○ **총 투자액**: 3.5천만불, 종업원 1,000명

○ **진출 동향** : 공장 규모: 80,000㎡ 공장과 30,000㎡ 작업장 보유, 월 5만 대 생산량, 동남아 최대 전동기 생산 시설 보유

◆ **Daikin (1995~)** : 에어컨 생산 및 판매

○ **총 투자액**: 1.3억불, 종업원 1,500명

○ **진출 동향** : 공장 규모: 210,000㎡, 연간 생산 100만 대, 기술: IoT 기반 생산관리, 자동화

5. 한국의 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 외교적 기반 및 제도적 협력 현황

- 한국은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에 31만여 명을 파병했으나, 공산권 몰락 및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배경으로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 간 급속한 교역 확대로,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은 170배 이상 증가해 2024년 기준 약 868억 달러 기록
-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대 교역 파트너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누적 기준 최대 투자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해, 경제뿐 아니라 교육, 사회, 인적 교류 등 다방면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있음
- 팬데믹,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미 신행정부 관세 정책 등 국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음

<베트남-한국 간 주요 외교일지>

날짜	주요 내용
1992	한국-베트남 수교

1996	김영삼 대통령 베트남 방문
1998	김대중 대통령 베트남 방문
2001	베트남 쩌 쩌 롱 국가주석 한국 방문, '한-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발표
2003	팜 반 카이 총리 한국 방문 노무현 대통령 베트남 방문(ASEM 정상회의)
2009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방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7.11	문재인 대통령 APEC 정상회의
2018.3	문재인 대통령, 하노이 방문 및 정상회담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 발표
2021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 서명(박노완 대사 - 쩌 홍 하 장관)
2022.12	응우옌 쑤언 폭 주석,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발표
2023.6	윤석열 대통령 하노이 방문해 한-베 정상회담
2024.6	팜 민 쩌 총리 공식 방한
2024.6	제1차 한-베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 주요 협력 분야 및 현황

① ODA 등 개발협력

-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ODA 공여국 중 하나로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발전하고 있음
- 협력 분야는 교통·인프라·환경·교육·보건 등에 집중되며, 최근에는 디지털, 기후변화, 첨단 농업 등의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음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ODA 협력 프로젝트>

분야	세부내용
교통·인프라	Vinh Thinh 교량 프로젝트 (국도 2C): 총 투자액 1억 3,700만 달러, 이 중 1억 달러는 ODA 대출, 3,700만 달러는 베트남 정부의 대응 자금 호아 두옌 - 탄 린 구간 개선 프로젝트 : 총 투자액 1,480억 동, 이 중 1,239억 동은 한국 정부의 ODA 대출, 242억 동은 베트남 정부의 대응 자금 로 테 - 라치 소이 도로 건설 프로젝트 : 총 6,355.3억 동, 한국 ODA 대출 2억 USD(4,549억 원), 베트남 대응 자금 1,806.3억 원 통일선 철도 노선 개선 프로젝트 : 철도 현대화와 기술 이전을 통한 철도인프라 개선
환경·개발 투자	녹색 도시 계획 기술 지원 프로젝트 (GDSS) : 2015-2018년 진행, 기후 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전략 지원 염습지 활용 프로젝트 : 베트남 북부 지방에서 새우, 게, 조개 양식 기술 이전 및 양식 현대화 지원 기후 변화 대응 도시 개발 관리 역량 강화 프로젝트 : 키엔장성 푸꾸옥, 태원성 태원

	시, 광남성 광남 시에서 시범 프로젝트 진행
교육·과학기술	하노이 산업고등학교 현대화 베트남-한국 산업기술학교 및 퀴논 전기기계 기술학교 건설 베트남-한국 과학기술원(VKIST) 설립: 2015년 KOICA와 함께 설립, 한국 정부 3,500만 달러, 베트남 정부 3,500만 달러 투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KOICA와 한국교류기금(KF)을 통해 매년 한국어 강사 파견 40개 초등학교 건설 및 기술센터 설립: 광남, 광아이, 빈딘, 푸옌, 칸호아 지역
보건	후에 국제 종합병원 건설 프로젝트: 총 투자액 776.4억 동(30.86백만 달러), 한국 ODA 대출 및 베트남 정부 대응 자금으로 건설 라이차우 성 종합병원 의료 장비 공급 프로젝트: 한국 ODA 대출 1,000만 달러로 2011년 완공

②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 베트남은 5,000여 개의 광산과 48종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며,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희토류 매장량 또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국가임
-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계기로, 양국은 ‘한-베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위한 MOU를 체결하며 공급망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함
- 해당 센터는 탐사, 공동연구, 기술협력 프로젝트 운영, 전문인력 양성, 기업 협의체 구성 등 핵심 광물 전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으로 현재 센터 설립이 추진 단계에 있음

③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 베트남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으며, ‘비전 2045, 2030 베트남 국가 에너지 개발 전략’과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 개정안 발표 등을 통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
- 또한,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을 통해 G7 및 국제 파트너로부터 자금 지원도 확보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행계획·자원운용계획 수립
- 한국은 베트남과 기후협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파리협정 제6.2조 기반의 국제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KOTRA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관련 분야 진출도 지원 중
- 2024년 6월에는 제1차 한-베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 개최. COP29 대응, 과학 기술 협력, 탄소시장 이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 협력 논의가 이루어짐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 및 특징

- 최근 3년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전년 대비 9.8% 감소한 2023년 이후, 2024년에는 37.5% 상승, 특히 2025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167.6% 증가하며,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투자 흐름이 반전되는 양상을 나타냄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제조·가공 분야가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체 투자액 중 약 79.4%가 이 분야에 집중됨. 이는 한국의 누적 기준 對베트남 제조업 투자 비중인 74.7%를 상회하고 있음
- 제조업 분야 신규 투자 건수는 2023년 133건, 2024년 122건, 2025년 1분기 20건 등 총 357건으로 중국(866건), 홍콩(471건) 대비 적은 수치이나, 기타 싱가포르, 대만, 일본보다는 많은 수준
- 같은 기간 제조업 분야 투자액을 보면, 증액 투자가 신규 투자의 두 배 이상을 기록,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형태가 신규 진출보다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및 계열사 등 기존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 3년간 대규모 증액 투자 단행.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23.5억 달러), 삼성 디스플레이(12억 달러), 서울반도체 및 기타 협력사(6억 달러 이상) 등
- 제조업 투자 중에서는 전기·전자 비중이 높고 투자 지역은 주로 베트남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에 산업인프라가 일정 수준 구축되어 안정적인 제조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 한국은 최근 3년간 제조업 신규 투자가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누적 투자액 기준 베트남 내 최대 제조업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발전·에너지, 부동산 개발, 유통 등 비제조 분야에서도 투자 지속되고 있음

<2022년 ~ 2025년 3월 산업 분야별 한국의 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US\$ 백만, 건)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투자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제조·가공	357	3,719	609	8,406	320	849	12,974	79.4%
전력 생산·판매	2	898	2	115	3	2	1,015	6.2%
도·소매, 유통, 수리	403	353	155	101	1,485	314	768	4.7%
부동산개발	38	549	32	60	54	28	637	3.9%
전문과학 기술	139	50	59	73	410	185	308	1.9%
물류, 창고	40	98	19	43	147	29	170	1.0%
정보통신	129	48	50	60	178	59	166	1.0%
기타	-	-	-	-	-	-	-	-
총계	1,298	5,846	609	8,406	320	849	16,334	100%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2022년 ~ 2025년 3월 한국의 베트남 신규 투자 주요 프로젝트>

(단위: US\$)

순번	투자프로젝트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투자지역	투자일
1	대우건설 양수 수력발전(TTA사 합작)	발전	9.0억	Ninh Thuan성(남부)	2024.09
2	효성 머트리얼스	화학소재	5.6억	Ba Ria-Vung Tau성(남부)	2023.10
3	대우건설 타이빈성 신도시 건설	부동산개발	3.8억	Thai Binh성(북부)	2024.10
4	텍스온	전자부품	3.0억	Hung Yen성(북부)	2024.12
5	E1 Corporation	LPG 저장소	2.0억	Quang Ninh성(북부)	2024.11
6	서진베트남	전자부품	2.0억	Hung Yen성(북부)	2024.12
7	덴티움	임플란트	1.7억	Da Nang시(중부)	2024.10
8	하이트진로	주류제조	1.0억	Thai Binh성(북부)	2023.11
9	서진베트남 2,3공장	전자부품	1.0억	Bac Giang성(북부)	2024.04
10	에코반스	화학	1.0억	Hai Phong시(북부)	2023.09
11	세도캠핑	캠핑장비제조	1.0억	Thai Nguyen성(북부)	2023.03
12	KHVATEC	전자부품	5.5천만	Thai Nguyen성(북부)	2023.04
13	실라 코퍼레이션	베어링	5.2천만	Hai Phong시(북부)	2023.12
14	JP Group	유통업	4.3천만	Ho Chi Minh시(남부)	2024.02
15	오리온	식품	4.1천만	Bac Ninh성(북부)	2023.06
16	UTI	전자부품	3.5천만	Vinh Phuc성(북부)	2024.12
17	세영베트남	전자부품	3.5천만	Hai Phong시(북부)	2024.03
18	성진 INC	가방류	2.0천만	Dong Nai성(남부)	2025.02
19	한미플렉서블	FPCB	1.0천만	Hai Phong시(북부)	2025.01
20	D.I.CERA VN	기타제조	1.0천만	Dong Nai성(남부)	2025.01

자료: 베트남 재무부(MOT, 2025.3.31. 기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체 집계

주요 한국 기업 진출 현황

◆ 포스코 (1990~) : 철강, 금속

- 총 투자액 : 약 21억 불, 총매출액: 약 14억불('24년 기준)
- 진출 동향 : 포스코 베트남(냉연/120만톤), 포스코-SSVINA(형강, 철근/100만톤), 포스코-VST(스테인리스/23.5만톤), 포스코-VHPC(냉연, 스테인리스/10만톤), 포스코-VNPC(냉연/24만톤) 등 총 5개 생산법인

◆ 태광실업 (1994~) : 신발, 비료

- 총 투자액 : 3개 신발공장(약 4.6억불), 비료공장(6천만불), 종업원 약 5만 명
- 진출 동향 : 베트남 남부에 총 3개 신발생산공장, 복합비료공장('16.07), 태광파워 홀딩스 화력발전소 건설 투자허가 획득('17.07)

◆ 삼성전자 (1995~) :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 총 투자액 : 232억불. 휴대폰(박닌 25억 불, 타이응웬 50억 불), 디스플레이(77억 불), 호치민 가전(20억불), 전기(25억불), R&D센터(2억불). 종업원 8.5만 명(협력사 10만 명)
- 총 매출액 : 삼성전자 계열사 베트남 전체 매출액 약 625억 불('24년)
- 진출 동향 : 삼성전자 박닌 휴대폰 공장('08.03), 타이응웬 공장('14.11), 디스플레이('14.07), 전기('13.09) 공장설립으로 클러스터 조성. 남부 호치민 지역에도 가전 복합단지('14.10) 건설, R&D센터 '22년 중 완공, '24년 디스플레이 추가 투자(18억 불)

◆ LG전자 (1999~) :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 총 투자액 : 105억 불. 전자(15억불), 디스플레이(70억불), 이노텍(20억불)
- 총 매출액 : LG전자 계열사 베트남 전체 매출액 약 103억불('24년)
- 종업원 4,500여 명 (협력사 20개사 동반진출)
- 진출 동향 : 최초 에어컨, 세탁기 등 현지생산을 통한 내수 판매에 중점. 이후 2013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생산기지화를 위한 투자. 기존 분산되었던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생산라인 하이퐁 공장으로 통합. 디스플레이(2017.12 준공), 이노텍(2018.05 준공), 디스플레이 공장 추가 투자 중

◆ 효성 (2007~) :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석유화학

- 총 투자액 : 46억불, 총매출 : 약 27억불 ('24년 기준)
- 종업원 9,000여 명
- 진출 동향 : 남부 동나이성에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설립(10억불 투자), 이후 2017년 말 LPG 기반 폴리프로필렌(PP) 생산을 위한 석유화학 생산 공장 투자('18년), 효성 TNS 제조공장 설립('20년, 1억불), '24년 상반기 BDO(부탄다이올) 공장에 10억불 추가 투자 등 총 8개 공장 운영 중

◆ 롯데 (2008~) : 부동산, 유통업

- 총 투자액: 롯데부동산, 마트 등 그룹 전체 투자는 약 26억불

- **진출 동향** : 최초 롯데마트 투자로 현재 베트남 내 총 13개 대형 유통센터 운영, 롯데카드는 현지 은행 자회사인 Techcom 파이낸스 인수(2015.09), 롯데호텔하노이('15완공), 호치민시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8.8억불), 롯데몰 하노이 건설('23년 완공) 등

◆ **현대자동차 (2008~) : 완성차 조립 및 부품 제조**

- **총 투자액**: 6.5억불, 종업원 4,800명
- **진출 동향** : 베트남 북부 닌빈성 내 현지기업 Thanh Cong 사와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합작법인 운영, 승합차 및 승용차 약 14만대/연 생산능력, 내수 100%, 시장 점유율 21.7%('20년 기준) /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를 위한 현대 케피코 베트남 투자('09년), CKD 공장 및 R&D센터 운영 중. 2024년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 대수 6만 8천 대

4 요약 및 시사점

1. 미국

□ 경제협력 관계의 심화

- 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후, 반도체·희토류·에너지·항공 등 첨단산업 중심의 협력 확대 중
-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력을 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 내 위상 제고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중

□ 통상 마찰과 외교적 대응

- 올해 미국 신행정부가 예고한 對베트남 고관세는 양국 경제관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대외의존도가 160%가 넘는 베트남에 큰 리스크로 작용
- 이에 베트남은 미국산 LNG·농산물·항공기 등 수입 확대, MFN 세율 인하, 스타링크·호텔 관련 규제 완화 등 우호적 조치를 통해 대응 중
- 관세 발표 직후 베트남은 對미 협상단을 파견하고, 미국 정부 및 기업과 정책 대화, 경제외교 강화 등을 통해 관세 이슈 완화와 협력 지속을 모색하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베트남은 첨단기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와 미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할 전망. 특히, 관세 협상에서 AI, 통신, 관광 등 일부 분야에 우호적 투자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협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
-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외국인 투자와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베트남 경제에 구조적 리스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임.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해 온 주요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베트남의 성장 전략 전환과 외부 환경 대응이 중요해질 전망

2. 중국

□ 투자 확대와 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

- 코로나19 이후, 특히 1차 트럼프 시기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중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 투자 분야는 기존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형에서 전자부품, 스마트 제조, 신에너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이 이뤄지는 추세

□ 협력, 경쟁, 외부 압력이 교차하는 산업 환경

- 철도·도로 등 인프라 분야에서는 양국 간 실익 중심의 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
- 반면, 미국은 중국계 기업의 베트남 우회수출을 문제 삼아, 원산지 검증 강화 및 통상 압력을 본격화하는 중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3년간 중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첨단 제조·신산업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미국의 對중 규제 강화는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중국 견제 속에서 중국계 기업의 베트남 이전 수요가 확대되었으나, 향후 미국 실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 지켜볼 필요
- CHINA+1 전략의 대표 수혜국인 베트남은 중국과 산업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좌우될 전망

3.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글로벌 자본의 ‘경유지’

- 싱가포르는 단순한 투자국을 넘어 글로벌 자본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경유지’로서의 전략적 위상을 갖고 있음
-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최근 제조업 분야 투자 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약 50% 규모에 달하는 등 비싱가포르계 자본의 투자 비중 꾸준히 지속, 확대되는 추세임

□ 패키지형 산업단지 협력, 지속가능 인프라로 확장

- 양국 대표 협력 모델인 VSIP(베트남-싱가포르 산업공단)은 초기 제조업 중심에서 스마트 물류,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개발 모델로 진화
- 또한, 해저 케이블, 스마트 항만 개발 등 디지털 및 물류 인프라 협력도 활발히 전개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경 속에서도 자유무역 질서와 안정적 공급망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베트남을 제조·물류 허브로 삼고자 하는 국가에게 싱가포르는 핵심 중개지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 체제의 주요 참여국으로서, 베트남과의 양자 협력을 넘어 ASEAN 및 글로벌 차원의 연계와 공동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4. 일본

□ 전략적 투자 다변화와 공급망 연계

- 일본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 반도체, 디지털, 에너지 등 투자 분야를 다변화하는 한편, 기존 소매·유통 영역에서도 투자를 지속 확대 중
-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치로, 베트남을 안정적인 생산기지이자 기술 협력 거점으로 활용하며, 동시에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 전통 인프라에서 탈탄소 산업까지 협력 범위 확장

- 일본은 ODA를 중심으로 교통, 의료 등 핵심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고속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그린수소 등 탈탄소 분야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목표와도 부합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일본은 베트남의 사회기반 구축과 산업 고도화 초기 단계부터 관여해온 장기 협력국으로, 향후에도 ODA를 축으로 한 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공급망 탄력성, 에너지 전환 등 주요 분야에서는 직접투자 외에도 제도 설계, 기술 자문, 인프라 연계 등 간접 영향력 중심의 협력도 병행되고 있음
- 베트남 정부 역시 일본을 일관된 정책과 중장기적으로 신뢰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 협력은 전통 제조 및 인프라 분야를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 탄소중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장·심화될 것으로 전망

5. 한국

□ 산업 협력 고도화와 진출 심화

- 한국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는 과거 인건비 절감 목적의 노동집약형에서 첨단 제조, R&D, 디지털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중
- 기존 진출 기업들의 증액 투자, 장기 정착이 이어지며 양국 간 산업 구조와 교역의 상호보완성이 심화되었으며, 대기업 및 협력사·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서비스업 등으로 진출 주체 및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현지 수요 대응과 구조적 과제

- 9,5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既진출한 가운데, 산업 고도화에 실질 기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 강화
- 첨단 제조업, 디지털·하이테크 분야 등 베트남 정부의 투자유치 수요가 높은 분야로의 진출이 중요하며,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안정적 전력 공급, 숙련 인력 확보 등 중장기 인프라 기반 마련이 필수
- 다만 베트남을 생산거점화한 의존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에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 있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은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산업 고도화의 기여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
- 그러나 인프라 부족, 규제 불확실성, 인력 수급 등 현지의 구조적 문제 대응 없이는 협력 지속성에 제약
- 특히 자유무역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 이미 심화된 상호의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

작 성 자

- | | |
|----------|-----|
| ▪ 하노이무역관 | 지 혜 |
| ▪ 하노이무역관 | 김경돈 |
| ▪ 하노이무역관 | 유하영 |

주요국 對베트남 진출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5-025

발	행	일	2025년 6월
발	행	인	강경성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전		화	1600-7119
홈	페	이	www.kotra.or.kr
문	의	처	KOTRA 하노이 무역관 (+84-24-3946-0511)

• ISBN: 979-11-402-1385-6 (95320)



Copyright © 202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